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어 구어 감탄문의 실현 양상

-화·청자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윤 광 열

2020년 1월 일



신 지 영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어 구어 감탄문의 실현 양상  
-화·청자 관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월 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윤 광 열



윤광열의 문학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완료함.

2020년 1월 일

위원장 신 지 영

(인)

위 원 Jeffrey Holliday

(인)

위 원 이 영 제

(인)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	4
1.2.1. 한국어 문장 유형에서 감탄문 설정에 관한 논란 .....	4
1.2.2. 감탄문과 감탄 표현 개념의 혼재 .....	8
1.2.3. 감탄문의 운율 연구 .....	13
1.2.4. 화·청자 관계를 고려한 감탄문 연구 .....	15
1.3. 연구 대상 .....	17
2. 연구 방법 .....	22
2.1. 자료 .....	22
2.1.1. 낭독 과제 자료 .....	22
2.1.2. 대화 과제 자료 .....	23
2.2 분석 방법 .....	24
2.2.1. 감탄문과 감탄 표현 판별 기준 .....	25
2.2.2. 감탄사와 종결 어미 분석 기준 .....	26
2.2.3. 문장 음높이 특성과 종결 억양 분석 기준 .....	28
2.2.4. 문장 분류 기준 .....	32
2.2.5. 감탄문과 감탄 표현 분석 방법 .....	34

<b>3. 연구 결과</b>	<b>36</b>
3.1. 감탄문과 감탄 표현	36
3.2.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분석 결과	39
3.2.1.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감탄사 실현	39
3.2.2. 감탄문의 종결 어미 실현	41
3.3.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운율적 특성 분석 결과	45
3.3.1.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음높이 특성	45
3.3.2.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종결 억양 실현	50
<b>4. 감탄문 실현 양상</b>	<b>58</b>
4.1. 감탄사의 실현 양상	58
4.2. 종결 어미의 실현 양상	61
4.3. 음높이 실현 양상	63
4.4. 종결 억양의 실현 양상	66
<b>5. 화·청자 관계에 따른 감탄문 실현 양상</b>	<b>69</b>
5.1. 화·청자 관계와 문장 유형의 실현 양상	69
5.2. 화·청자 관계와 종결 어미 실현 양상	70
5.3. 화·청자 관계와 종결 억양의 실현 양상	73
5.4. 화·청자 관계와 감탄사 그리고 음높이 특성	77



6. 결론 .....	82
-------------	----

<참고 문헌> .....	86
---------------	----

## 표 목차

<표 1-1>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문장 유형에 대한 제 견해 .....	5
<표 1-2> 윤석민(2010)의 의미 특성에 따른 국어 문장종결법의 종류 .....	7
<표 1-3> 노대규(1997)의 감탄문의 청자 대우 체계 .....	9
<표 1-4> 박지순(2014)의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중 화·청자 요인 .....	15
<표 1-5> 선행 연구의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 .....	18
<표 1-6> 조민하(2015)의 종결 어미의 문장 유형 .....	20
<표 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 크기 .....	23
<표 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인대화DB의 화·청자 정보 .....	24
<표 2-3> 최호철(2000)의 감정 감탄사 목록 .....	27
<표 2-4> 조민하(2011 : 180)의 발화 말 경계 성조에 실현된 의미 기능 .....	30
<표 2-5>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서 나타나는 억양의 기능 .....	31
<표 2-6> 예 (9)의 문장 분류 .....	33
<표 2-7> 2인대화DB 자료 구조에 따른 문장 빈도 정리 .....	35
<표 3-1>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 .....	36
<표 3-2> 화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본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 .....	37
<표 3-3> 화·청자 성별 관계를 고려하여 살펴본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 .....	38
<표 3-4> 존대 여부를 고려하여 살펴본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 .....	38
<표 3-5>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른 감탄사 실현 빈도 .....	39
<표 3-6> 화자 성별에 따른 감탄사 실현 .....	40

<표 3-7> 존대 여부에 따른 감탄사 실현 .....	40
<표 3-8> 감탄사와 종결 어미 실현 .....	41
<표 3-9> 감탄문의 종결 어미 분포 .....	42
<표 3-10> 화·청자 관계를 고려한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	43
<표 3-11> 화자 성별에 따른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	43
<표 3-12> 화·청자 성별에 따른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	44
<표 3-13> 존대 여부에 따른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	44
<표 3-14>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유형 간 문장 음높이 평균 검증 결과 .....	48
<표 3-15>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유형 간 문장 음높이 최저점 검증 결과 .....	49
<표 3-16>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유형 간 문장 음높이 최고점 검증 결과 .....	49
<표 3-17>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유형 간 문장 음높이 최고저차 검증 결과 .....	50
<표 3-18> 문장 분류에 따른 장음화 실현 .....	51
<표 3-19> 문장 분류에 따른 굴곡 성조 실현 .....	52
<표 3-20> 감탄형 종결 어미에 따른 종결 억양 실현 .....	53
<표 3-21> 평서문의 종결 억양 .....	54
<표 3-22> 감탄 기능 수행 여부에 따른 평서문의 종결 억양 .....	55
<표 3-23>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 여부에 따른 종결 억양 분석 .....	56
<표 5-1> 화자 성별에 따른 억양 산출 비율 .....	74
<표 5-2> 화·청자 성별 관계에 따른 종결 억양 실현 양상 .....	74
<표 5-3> 박진호(2011)에 따른 ‘-구나, -네, -다’ 분류 .....	78
<표 5-4> 문장 유형과 화·청자 관계에 따른 음높이 특성 .....	80

## 그림 목차

<그림 1-1> 노대규(1997)의 감탄문 분류 .....	10
<그림 1-2> 이미지(2014)의 감탄 표현의 개념 .....	11
<그림 3-1>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 여부에 따른 음높이 특성 .....	47
<그림 4-1> 감탄사의 분포 .....	59
<그림 4-2>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른 감탄사 실현 .....	60
<그림 4-3>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	61
<그림 4-4>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른 장음화 실현 양상 .....	66
<그림 4-5>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른 굴곡 성조 실현 양상 .....	67
<그림 5-1> 존대 여부에 따른 -네요, -구나, -네의 실현 양상 .....	71
<그림 5-2> 존대 여부에 따른 반말체 감탄 어미 실현 양상 .....	72
<그림 5-3> 존대 여부에 따른 종결 억양 실현 양상 .....	76
<그림 5-4> 감탄사와 종결 어미 결합 양상 .....	79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인의 자유 발화 대화 자료로 구성된 2인대화DB 코퍼스를 활용하여, 한국어 구어 감탄문의 실현 양상을 통계적으로 재검증하고,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율의 실현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의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문장 유형으로서의 감탄문 설정이나 감탄문의 종결 어미 설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운율 연구를 하더라도 대규모의 자유 발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화·청자 관계가 배제된 채 진행된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규모 구어 대화 말뭉치를 활용하여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첫째는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라는 정의이다. 이 정의로 인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감탄문을 연구할 때, 청자가 없는 혼잣말을 연구하거나 청자가 있는 대화 자료를 연구하였다 하더라도 청자를 분석의 요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감탄문 정의와 달리 실제로 구어 상황에서 산출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을 살펴보면, 화자가 청자에 따라 어미나 종결 억양을 달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1)은 2인대화DB<sup>1)</sup>에서 나타난 감탄문

---

1) 2인대화DB의 대화 참여자는 존댓말을 하는 A와 반말을 하는 B로 구성되며, 대화 참여자 사이의 친밀도는 친밀함으로 통제되었다.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1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을 사용한 대화 쌍의 예이다.

(1) A: 전공 학점으로 안 들어가요(H%)?

B: 어, 전공으로 안 들어가(L%).

그니까 전공 관련 외국어인가 무슨(L%).

A: 아~ 전관교 느낌이구나(HL%)!

B: 응(L%).

(1)의 예의 두 번째 문장에서 A는 해라체를 사용하며,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억양인 HL%를 사용하고 있다. 즉, 청자를 배제한 채 혼잣말을 하거나,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발화한 것이 아니라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며 자신이 느낀 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A와 B의 화·청자 관계를 변형한 (2)를 살펴보자.

(2) 학생: 전공 학점으로 안 들어가요(H%)?

교수: 어, 전공으로 안 들어가(L%).

그니까 전공 관련 외국어인가 무슨(L%).

학생: (?) 아~ 전관교 느낌이구나(HL%)!

교수: 응(L%).

(2)는 (1)의 대화 내용과 종결 억양을 유지한 채, 대화 참여자의 신분을 교수와 학생으로 변경한 것이다. (1)과 달리 (2)에서 학생의 두 번째 발화는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교수와 학생의 친밀도가 (1)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2)의 학생의 두 번째 발화는 여전히 어색하다. 이는 학생과 교수 사이의 연령차와 지위차가 친밀도로 상쇄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3)과 같이 종결 억양이나 종결 어미를 변경하면 같은 내용을 발화하더라도 어색함이 사라진다.

(3) 학생: 전공 학점으로 안 들어가요(H%)?

교수: 어, 전공으로 안 들어가(L%).

그니까 전공 관련 외국어인가 무슨(L%).

학생: 아~ 전관교 느낌이구나(LH%)! / 아~ 전관교 느낌이군요(HL%)!

교수: 응(L%).

(1), (2), (3)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 화·청자 관계는 감탄문의 종결 억양과 종결 어미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화·청자 관계에 따른 감탄문의 종결 어미 실현을 연구한 하지희·조용준(2016)에서도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의 종결 어미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감탄문의 정의로 인해 그동안 미진했던 화·청자 관계에 따른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자기의 느낌을 표현’에서 볼 수 있듯 감탄문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산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감탄문과 감탄 표현을 연구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연구자의 주관적 직관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을 예로 감탄문의 음조를 설명하거나(김민수 1971, 노대규 1997), 실제 산출 자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낭독 발화(홍종선 2017)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자에서는 감탄문의 종결 억양을 /241\↘/(김민수 1971), 또는 /231→\↘/이나 /241→\↘/(노대규 1997)로 한정하였다. 남녀 각 1인의 낭독 발화를 분석한 홍종선(2017)은 전자와 달리, 감탄문의 종결 억양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평조, 상승조, 하강조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2명의 낭독 발화 자료로 감탄문의 종결 억양을 일반화할 수 없고, 그 종결 억양의 구분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청자 관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2인 대화 자유 발화 자료인 ‘2인대화DB’를 활용하여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특성을 살필 것이다. 대규모의 자유 발화 말뭉치를 활용하여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여러 감탄문과 감탄 표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선행 연구

한국어 감탄문에 관한 연구는 감탄문의 문장 유형 구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가 감탄문을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설정할 것인가, 설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있었다. 특히, 감탄문을 인정하는 연구에서도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운율적 특성을 연구한 것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신지영(2017)에서는 ‘한국어의 언어 단위는 그것이 어떠한 단위이든 무관하게 운율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하나의 문장으로서 종결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즉, 한국어의 문장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종결 형태 표지(종결 어미)뿐만 아니라 문종결 운율 표지(종결 억양)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감탄문 설정에 대한 논란을 살피고, 감탄문을 인정하는 견해와 감탄문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의 대표적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운율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주목하여, 감탄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감탄문뿐만 아니라 감탄 표현에 관한 연구를 살펴면서 그 둘의 개념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청자 관계에 따라 감탄문이나 감탄 표현을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연구 진행 방향의 기본 배경이 되는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 1.2.1. 한국어 문장 유형에서 감탄문 설정에 관한 논란

학교문법 체계에 따라 문장 유형을 정리하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문장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할 것인가에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홍종선(2017)을 참고하여 학자에 따른 문장 유형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문장 유형에 대한 제 견해

ㄱ	4가지	최현배(1937, 1973):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김민수(1971):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u>감탄문</u>
		임동훈(2011):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ㄴ	5가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6, 2002): 평서문, <u>감탄문</u> ,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남기심·고영근(1985, 1993): 평서문, <u>감탄문</u> ,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서정수(1994): 서술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이관규(2016):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u>감탄문</u>
ㄷ	6가지	이희승(1970, 1976), 김민수(1979):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u>감탄문</u> , 응낙문
ㄹ	8가지	고영근·구본관(2008): 평서법, <u>감탄법</u> ,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위와 같이 문장 유형에 대한 분류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며, 그중 학교문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청유문과 감탄문은 그 설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김민수(1971)를 제외하면 모두 문장 유형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신지영(2017)에서도 ‘-다(평서문 L%), -냐(의문문 H%), -라(명령문 L%), -자(청유문 L%)’의 전형적인 무표 운율을 지니는 형태 표지를 언급하면서, 해당 형태 표지는 비전형적인 종결 운율이 실현되어도 문장 유형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평서, 명령, 청유문이 동일한 운율 표지인 L%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화자도 청자도 문장의 유형을 혼동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를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를 청자가 쉽게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로 설명하였다. 이렇듯 학교문법에서 설정하는 문장 유형에서 논란이 되는 청유문과 감탄문 중, 청유문은 문장 유형으로 설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탄문의 경우 문장 유형 설정에 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감탄문을

문장 유형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 임동훈(2011)에서는 감탄문은 독자적인 문형으로 간주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평서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예를 들며, Michaelis(2001), Beyssade & Marandin(2006)<sup>2)</sup>에서의 감탄문의 정의가 영어에는 맞지만, 한국어 감탄문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4) 가. How tall Kim is!

나. 네가 벌써 대학생이구나.

나'. 저기 철수가 오는구나.

다. A: 너도 내가 미웠겠구나. B: 아니요, 안 미웠는데요.

감탄문의 정의가 (4가)에서는 들어맞으나, (4나, 4나', 4다)에서는 척도 술어 상정이 어렵고 (4나', 4다)에서는 놀라움의 의미도 읽혀지지 않으며, (4다)에서는 A가 주장하는 내용이 부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감탄문을 평서문의 한 종류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영어의 감탄문에 대한 정의가 한국어에 반드시 들어맞아야 할 필요도 없으며, (4나', 4다)의 경우 화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놀라움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임동훈(2011)은 노대규(1983)에서 들고 있는 감탄문의 음조에 대한 설명인 '서술문은 /221\이나 감탄문은 /231→\이나 /241→\이다.'도 비판하고 있다. Sohn(1994: 46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서문의 억양 패턴도 #2-2.31#로 볼 수 있으므로 평서문과 감탄문의 억양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세밀하게 억양 변이를 고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Sohn(1994)의 연구에서 언급한 /231/이 평서문의 대표적인 종결 억양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본

2) 임동훈(2011)에서 예로 든 영어의 감탄문에 관한 정의

- Michaelis(2001): 'p to X degree'처럼 척도(scale) 술어 부분이 변항으로 되어 있는 개방 명제를 사실로 전제한 채 화자의 관점에서 놀라움을 표시함.
- Beyssade & Marandin(2006): 정도나 양의 척도에서 끝점을 넘어서는 사실과 관련된 화자의 주관적 의견 표명을 나타냄.

연구에서 사용한 남녀 20대 화자 114명의 2인대화DB 자료에서 평서문의 대표적인 종결 어미인 ‘-다’를 대상으로 종결 역량을 분석하였을 때, 약 57.6%가 L%(Sohn의 2)로 실현되었고, HL%(Sohn의 231)는 2.2%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감탄문을 인정하는 견해의 연구에는 윤석민(2010), 문보경(2013)이 있다. 먼저 윤석민(2010)은 명제 내용, 행위자, 진술 방식, 진술 태도를 분류 기준으로 삼고 문장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 1-2> 윤석민(2010)의 의미 특성에 따른 국어 문장종결법의 종류

	설명법	감탄법	의문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명령법	공동법
명제 내용	상태	상태	상태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위자	화자	화자	청자	화자	청자	청자	청자	화·청자
진술 방식	전달	전달	요구	전달	전달	전달	요구	전달/요구
진술 태도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앞선 임동훈(2011)에서는 감탄문을 평서문의 하위 부류로 두었다. 하지만 윤석민(2010)은 감탄법(감탄문)과 설명법(평서문)은 명제 내용, 행위자, 진술 방식은 동일하지만, 진술 태도에서 주관적 감정을 담고 있는지 그런 감정이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인지에 따라 감탄법과 설명법의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보경(2013)도 화행으로 서술문은 ‘진술(asserting)’을 감탄문은 ‘감탄(exclaiming)’을 표하기 때문에 두 문장 유형을 분류해야 하며, 서술문은 단순히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문장이라면, 감탄문은 화자의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감탄문을 인정하지 않는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한 간접 인용 여부에 대해서도, 약속문과 같은 문형도 인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용 여부는 문장 유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

다. 그리고 감탄문에 대해서는 한국어의 경우 감탄문이 인용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감탄문의 설정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된다. 감탄문을 평서문<sup>3)</sup>의 하위 부류에 두는 견해와 감탄문을 독자적인 문장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감탄문은 윤석민(2010), 문보경(2013)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 진술 태도에서 객관성을 지니는 평서문과 달리 주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진술 태도의 주관성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표현 방법 차이에서 크게 드러난다. 평서문의 경우 명제 내용이 전경화되어 명제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반면, 감탄문의 경우 명제 내용은 배경화 되고, 화자의 주관적 느낌 표현이 전경화 되어 진술 태도에 있어 주관성이 부각 되는 것이다.

두 문장 유형은 문장의 참·거짓 판단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평서문은 전경화 된 명제 내용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그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지만, 감탄문은 배경화 된 명제 내용은 사실로 간주한 채 화자의 주관적 느낌이 전경화되었기 때문에 참·거짓 판단이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감탄문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탄문을 문장 유형의 하나로 인정한 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1.2.2. 감탄문과 감탄 표현 개념의 혼재

한국어의 감탄문에 관한 연구는 많은 수가 존재하나, 대부분 종결 어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며, 상대적으로 감탄문의 운율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감탄문의 특성에 관해 전반적으로 톺아본 연구도, 문장 유형으로서의 감탄문과 감탄 기능 실현을 통한 화행으로서의 감탄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

---

3) 선행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평서문으로 언급한 문장 유형에 대해 서술문, 설명법, 서술법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인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평서문으로 통일하여 서술할 것이다.

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감탄문의 운율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감탄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노대규의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총정리한 노대규(1997)를 꼽을 수 있다. 노대규(1997)에서는 감탄문의 특성을 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구나, -군, -구려, -구먼, -군, -아라, -군요, -누나, -도다’ 등과 같은 독자적인 종결 어미를 지닌 것, 서술문과 다른 음조, 독자적인 청자 대우 체계<sup>4)</sup>, 서술문과 다른 비동일 주어 제약, 직접화법만 있는 점, 시인소적 제약<sup>5)</sup>, 시처소적 제약<sup>6)</sup> 및 지각 제약<sup>7)</sup> 등이 그것이다.

한편 노대규(1997)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로 종결된 문장을 순수 감탄문으로, 감탄형 종결 어미가 아닌 다른 형태로 종결되었지만 감탄적 음조가 없힌 문장들을 의사 감탄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운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탄문의 범주를 확장하여 살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에는 의의가 있지만, 감탄문과 감탄 표현

4) 노대규(1997)는 감탄문의 청자 대우 체계를 수직적 관점에서 ‘존대’와 ‘비존대’, 수평적 관점에서 ‘격식’과 ‘비격식’으로 양분하였다. 홍종선(2017)은 감탄형으로만 쓰이는 종결 어미들은 다른 문장 유형과 다른 독자적인 상대 높임 체계를 가져, 서술어의 종결형에 ‘-요’를 접미하는 높임 표현만 있든가 아예 상대 높임 형태가 없다 하며 노대규(1997)의 연구를 다시 확인하였다.

<표 1-3> 노대규(1997)의 감탄문의 청자 대우 체계

등급	감탄문 종결 접미형태
아주 높임	-군요, -구먼요
예사 높임	-구려
예사 낮춤	-구먼, -군
아주 낮춤	-구나, -아라, -누나, -도다

5) 시인소적 제약: 전달적 감탄문의 종결 접미 형태는 화자가 청자가 존재하는 발화 상황에서만 쓰이고, 독백적 감탄문의 종결 접미형태는 청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된 발화 상황에서 쓰인다.

6) 시처소적 제약: 화자가 발화 현장 안에서 명제 내용에 관하여 지각한 사실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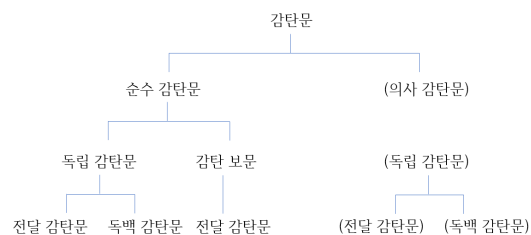
7) (발화 현장) 지각 제약: 화자가 발화 현장 안에서 지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직접 새로 지각하게 됐을 때만 쓰인다.

모두에 ‘감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어사용의 혼동을 초래하였다.<sup>8)</sup>

정선주(2007)는 노대규(1983)의 감탄문의 분류를 인용하면서, 감탄문을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것에만 국한하는 것은 통일감 있는 문법 기술의 체계를 세우기에는 용이할지 모르나, 언중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감탄적 언어 표현을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된다 비판하였다. 그리고 감탄문을 보다 광범위한 사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감탄 표현’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감탄 표현과 다른 문장 유형들을 비교하는 부분을 보면 감탄 표현을 감탄문과 동등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문장 유형으로서의 감탄문과 감탄 기능 실현을 통한 화행으로서의 감탄 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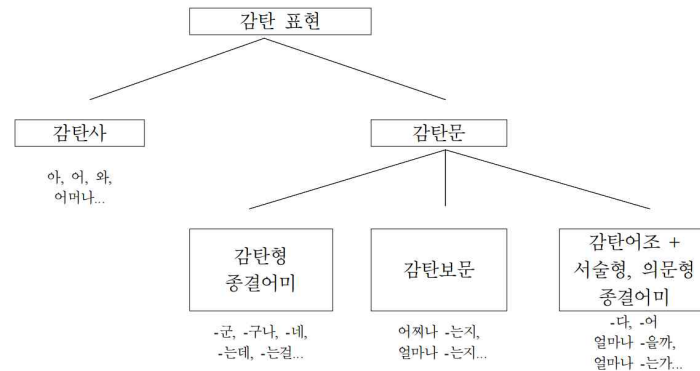
이미지(2014)도 발화 상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기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감탄 표현이라는 용어는 감탄문을 형성하는 감탄형 종결 어미와 감탄 보문, 서술형·의문형 종결 어미, 그리고 감탄사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개념이라 재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

8) 노대규(1997)에서는 감탄문을 <그림 1-1>과 같이 분류한다.



<그림 1-1> 노대규(1997)의 감탄문 분류

여기서 순수 감탄문은 감탄문 종결 어미를 포함한 독립 감탄문과 감탄 보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사 감탄문은 서술법 종결 어미로 끝났지만 감탄적 음조가 없인 문장이나, 의문법 종결 어미로 끝났지만 감탄적 음조가 없인 문장을 말한다. 의사 감탄문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감탄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다. 전달 감탄문과 독백 감탄문은 청자 상징 여부에 따라 청자를 상징하면 전달 감탄문, 상징하지 않으면 독백 감탄문이 된다.



<그림 1-2> 이미지(2014)의 감탄 표현의 개념

<그림 1-2>는 정선주(2007)의 감탄 표현에 대한 개념보다 좀 더 세밀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탄문의 하위 부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감탄의 어조가 실현된 감탄문이 아닌 다른 문장 유형도 모두 감탄문에 포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문장 유형에 사용될 수 있는 어미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평서문의 종결 어미인 ‘-다’까지 감탄문에 포함 시켜 문장 유형 구분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정선주(2007)와 이미지(2014)는 감탄 표현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감탄문이 문장 유형의 일종이고 감탄 표현이 감탄 기능 실현을 통한 화행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때, 서술형과 의문형의 종결 어미들로 실현된 문장을 감탄문의 하위에 두는 것이 합당한 분류인지는 의심이 든다<sup>9)</sup>.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모두 감탄문을 인정하는 연구들이었고, 감탄 표현으로 감

9) (5) 가. 오늘은 풀이가 밥을 잘 먹는다(L%).

나. 오늘은 풀이가 밥을 잘 먹는다(H%)?

(5)는 평서문의 대표적인 종결 어미인 ‘-다’로 실현된 문장들의 예시이다. 두 문장은 같은 형태이지만 다른 종결 억양으로 실현되었다. (5가)는 평서문의 대표적인 종결 억양인 L%로 실현되어 진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5나)는 의문문의 대표적인 종결 억양인 H%로 실현되어 ‘청자 반응 유도’라는 준 양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두 문장은 종결 억양을 통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형태적 표지인 ‘-다’에 의해 평서문으로 분류된다.

탄문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감탄문을 인정하지 않고, 감탄은 의미 특성을 표현하는 감탄 표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조민하(2019)는 여성 자유 발화 300분 분량을 대상으로 감탄 표현을 분석하여 한국어 감탄문 설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감탄형 종결 어미인 ‘-구나’의 감탄 표현은 발화 말에 나타나는 ‘-구나’의 전체 가운데 39%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나’ 이외에 ‘-어/아’, ‘-야’, ‘-다’, ‘-나’에 이르는 다양한 의미와 문법 범주에 속한 종결 어미가 감탄 표현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특히, 감탄형 종결 어미로 주로 일컬어지는 ‘-구나’, ‘-네’는 이 의미들이 가지는 인식적 의미 속성 [새로 앎]의 의외성에 있으며, 감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운율 요소가 결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놀람’이 강하게 표현될 때 ‘HL:’과 ‘LHL’로, ‘놀람’이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될 때는 ‘LH’, ‘L:’, ‘M:’으로 실현된다고 말하며 감탄 표현의 종결 억양 분포를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감탄문은 윤석민(2010), 문보경(2013)에서처럼 평서문과 차별되는 화행적 특성을 보이고, 노대규(1997)에서 제시한 감탄문이 지니는 독자적 특성이 존재한다. 또한, 앞서 (5)의 예에서 살핀 것처럼 문장의 유형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형태적 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탄문을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인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감탄문이란 형태적 측면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가, 음운적 측면에서는 감탄 음조가 함께 실현되는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감탄 표현이란 형태적으로는 구애받는 조건이 없고, 음운론적으로는 감탄 음조로써 감탄 기능을 실현하는 화행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면 감탄문은 감탄 표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감탄 표현과 감탄문의 범주 설정에 관해 선행 연구와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감탄문의 하위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로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된 문장만을 두었다는 점이다. 즉, 화행의 차원에서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여 산출된 모든 형태의 표현들은 감탄 표현의 하위 요소가 되며, 감탄문으로 분류되는 것은 그 중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된 문장뿐이다. 이러한 분류는 종결 어미 실현을 통한 문장 유형과 문장 기능 실현을 통한 화행의 차원을 분리하여, 좀 더 정밀한 문법 체계 정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1.2.3. 감탄문의 운율 연구

많은 선행 연구들이 ‘감탄문’ 또는 ‘감탄 표현’에 관해 연구하였지만, 운율 연구를 면밀하게 진행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감탄문의 음조에 관해 언급한 연구로는 김민수(1971)와 노대규(1997) 그리고 홍종선(2017)이 있다.

김민수(1971)은 서술문과 달리 감탄문의 음조는 /241\의 형태라고 하였다. 노대규(1997)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였는데, 말할 이의 정서나 감정이 특별히 강조되지 않은 서술문에 나타나는 음도는 /221\이라고 할 수 있고, 감탄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음도가 /231→\ 또는 /241→\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실제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가 아니며, 종결 억양의 구분도 매우 제한적이다.

홍종선(2017)에서는 남성과 여성 각 1인의 낭독 발화를 대상으로 운율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감탄문의 종결 억양이 평조, 상승조, 하강조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감탄문이 실현될 때 전체적인 음높이가 상승하고, 음높이 변동 폭이 커지며 발화 말 음절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정 문장의 종결 억양의 형태를 화자 2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감탄’의 특성상 낭독 발화가 실제 감탄문이나 감탄 표현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체계적으로 감탄문의 운율 연구를 진행한 연구로는 IPO 방식<sup>10)</sup>에 따라 107명의 실험 참여자에게 지각 실험을 한 오재혁(2011)과 K-ToBI<sup>11)</sup> 방식에 따라 300분

---

10) IPO(the Institute of Perception Research): IPO는 네덜란드 아이트호벤(Eindhoven)에 있는 연구소이다. IPO 연구의 지각적 관점에서는 억양의 최소 단위를 지각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음높이 움직임(pitch movement)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억양은 상대적 음높이의 단계적 이동이 아니라 방향(direction), 상승과 하강의 정도(size), 목표점 도달 시간(timing), 이동 속도(rate of change) 등을 갖고 있는 물리적 실체이다.

(오재혁 2011)

11) K-ToBI(Korean TOnes and Break Indices): K-ToBI는 영어 Tobi 방식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한국어 표준어 운율 전사를 위해 마련된 운율 기술 규약이다. 청지각적으로 유의미하게 변별되는 음높이 단계(pitch level)에 따라 ‘H’ 또는 ‘L’의 양분 체계로 운율을 설명하며, 이 때 H와 L은 주변 음절의 음높이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Jun 2000)

분량의 여성화자 35명의 2인 대화 산출 자료를 바탕으로 종결 억양을 귀납적으로 해석한 조민하(2015)를 들 수 있다.

오재혁(2011)은 다양한 문장 유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어’를 이용하여 종결 억양, 종결 어미의 길이 등을 조작한 후 실험 참여자에게 해당 문장을 들려준 후 문장 유형을 판단하게 하는 지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종결 억양을 상승-하강으로 조작하였을 때 감탄문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특히, 음높이 굴곡점을 6 ST로 하였을 때는 13.6%였던 감탄문의 지각 비율이, 9 ST에서는 31.1%, 12 ST에서는 34.9%로 상승하였다. 특히 종결 억양을 상승-하강 억양으로 조작한 후 음길이를 조작하였을 때, 감탄문의 지각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통의 음길이에서 13.9%였던 감탄문의 지각 비율이 긴 음길이에서는 39.2%로 상승하였다.

조민하(2015)는 여성 35명을 대상으로 2~3명씩 조를 만들어 자유로운 잡담 형식의 대화를 하도록 안내한 후 녹음을 진행하였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종결된 문장에 대해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 목록을 정리하고 종결 억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결 어미로 실현된 문장종결법은 평서문(81%), 의문문(14%), 감탄문(3.2%), 명령문(1.9%), 청유문(0.3%)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중 감탄문은 주로 ‘HL’이 장음화된 ‘HL:’에 의해 실현되며, 종결표지에서는 ‘HL:’, ‘L:’, ‘LHL’, ‘M:’ 등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sup>12)</sup>.

지금까지의 감탄문 운율 연구를 종합하면, 감탄문은 다른 문장 유형보다 전반적으로 음높이가 높고, 음높이 변동 폭이 크며, 종결 억양은 주로 ‘HL%’ 또는 ‘HL:’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음높이, 종결 억양, 장음화 여부는 감탄문의 운율적 특성을 판단하는 분석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좀 더

---

12) 조민하(2015)는 감탄문을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였더라도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면 화·청자의 관계적 기능과 관련되는 화용적 용법이므로 감탄문으로 볼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노대규(1997), 하지희·조용준(2016) 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탄문도 청자를 상징한 채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조민하(2015)의 감탄문에 관한 정의나, 청자 포함 여부에 따라 감탄문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합당한지는 의심이 든다.

객관적이고 세밀한 감탄문 운용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1.2.4. 화·청자 관계를 고려한 감탄문 연구

감탄문을 연구할 때 화·청자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1), (2), (3)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감탄문 연구 중 화·청자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청자 대우법에 따라 감탄문 종결 어미를 분류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연구들은 화·청자 관계의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감탄문을 면밀히 살폈다고는 할 수 없다<sup>13)</sup>.

화·청자 관계를 고려하여 감탄문을 살핀 연구로는 하지희·조용준(2016)을 들 수 있다. 하지희·조용준(2016)은 준구어 자료 18편(총 2,028,262 어절)을 분석 대상으로 감탄문의 종결 어미 실현을 살핀 연구이다. 감탄문의 종결 어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감탄형이라 명시된 어미 중 준구어 자료에 나타난 출현 빈도 상위 10개의 어미인 ‘-네, -네요, -구나, -는데요, -구만, -군요, -군, -어라, -구먼’을 선정

13) 박지순(2014)에서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표 1-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4> 박지순(2014)의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중 화·청자 요인

영향 요인		분류
화·청자 요인	1. 화자 성별	남성, 여성
	2. 화자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청자 성별	남성, 여성, 다양, 모름
	4. 청자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다양, 모름
	5. 연령 차	+연령 차, -연령 차, 0연령 차, 다양, 모름
	6. 지위 차	+지위 차, -지위 차, 0지위 차, 다양
	7. 친소 관계	친, 소, 다양
	8. 만남 횟수	초면, 구면, 다양
	9. 관계 유형	1차집단(친족), 2차집단(친분이 있는 사적 관계), 3차집단(친분이 있는 공적 관계), 4차집단(친분이 없는 낯선 관계)

하였다. 맥락 요인으로는 개별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세대), 관계 요인으로 성별 관계, 연령차(세대차), 지위차, 친소 관계의 4가지 요인을 설정하였다. 화·청자 요인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화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은 ‘-군’을 여성은 ‘-어라’, ‘-네(요)’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구만’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여성에게 많이 쓰이며, 여성이 여성에게 친근감이나 다정함을 표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감탄문의 종결 어미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고, 다양한 화·청자 관계를 설정하여 감탄문 종결 어미들의 분포 특성을 살핀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준구어 자료는 작가의 의도가 담길 수 있고, 사회적 편견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언어생활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탄문의 종결 어미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운율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감탄문의 종결 어미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다각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준구어 자료를 기반으로 맥락 요인에 따른 감탄문 종결 어미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준구어 자료는 구어 현실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결 어미만을 분석하는 것은 전반적인 구어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유 발화 2인 대화 자료를 활용하여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운율적 특성을 화·청자 관계에 따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1.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화·청자의 성별 관계와 연령 및 지위차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2인대화DB’에서 나타나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이다. 노대규(1997), 정선주(2007), 이미지(2014)로 이어지는 일련의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정의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연구 대상 설정에 앞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감탄문: 감탄형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문장 유형의 일종으로,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문장.

감탄 표현: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정감성을 담아 표현한 발화.<sup>14)</sup>

(6)의 정의가 선행 연구의 정의와 다른 점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황에서’의 구문을 삭제한 것과 감탄문의 정의에만 감탄형 종결 어미 실현을 포함 시킨 것이다. 이는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과 감탄 표현 산출에 미치는 영향과 문장 유형으로서의 감탄문과 화행으로서의 감탄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5)의 예와 신지영(2017)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장을 고정적으로 특정 문장 유형으로 설정하는 ‘-다, -냐, -라, -자’와 같은 종결 어미들이 존재한다. 이에, 고정적으로 감탄문으로 해당 문장을 설정하는 종결 어미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종결 어미가 감탄형 종결 어미라면 감탄

---

14) 1.2.2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감탄문도 감탄 표현의 하위 부류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된 문장과 감탄형 종결 어미 없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 문장을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해, 감탄문과 감탄 표현을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6)의 정의를 바탕으로 감탄문을 판단하기 위한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을 선정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을 설정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연구자마다 그 목록의 설정이 달랐다. 아래 <표 1-5>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감탄형 종결 어미에 관한 연구들과 그 예시이다.

<표 1-5> 선행 연구의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

연구	감탄형 종결 어미
노대규(1997)	-구나, -군(요), -구먼(요), -구려, -아라, -누나, -도다
이종희(2004)	-오, -구먼, -르세, -로세, -이, -구나, -도다, -아라, -르거나, -르쏘냐, -군, -네, -는데, -는걸, -아
국립국어원(2005)	-군(요), -구나, -네(요), -는데(요), -는걸(요), -어라, -구먼(요)/구만(요), -구려
정선주(2007)	-어, -다, -어라, -구나, -군(요), -구먼(요), -구려, -누나, -도다
고영근·구본관(2008)	-구나, -구먼, -구려, -군(요), -어, -어라
윤석민(2010)	-구나, -로구나, -구먼, -로구먼, -구려, -로구려, -군, -로군, -어/아라, -어/아, -노라
임동훈(2011)	-어라, -구나, -구려, -군, -구먼, -다니
문보경(2013)	-구려, -구먼, -구나, -군, -어/아(요)
이미지(2014)	-군, -구나, -네(요), -는데(요), -어라, -더군(요), -데(요), -던데(요), -더라, -더라고(요), -어, -다
이관규(2016)	-구나, -군(요), -구먼(요), -구려, -어/아라, -누나, -노라, -도다
하지희·조용준(2016)	-네(요), -는데(요), -구나, -구만, -군(요), -어라, -구먼

<표 1-5>에서 등장하는 감탄형 종결 어미 중 언급된 횟수 상위 10개를 빈도순으로 정렬하면 ‘-구나, -군(요), -구먼(요), -아/어라, -구려, -아/어, -네(요), -는데(요), -누나, -도다’와 같다. 빈도수 상위 10개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2회 이하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횟수만을 기준으로 감탄형 종결 어미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을 재설정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해당 어미가 항상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 어미인지의 여부이다. <표 1-5>에서 언급된 ‘-는데’는 대개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연결 어미로 실현된다. 종결 억양이 함께 실현되어 종결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본래 종결 어미는 아니다. 따라서 종결 억양을 통해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수행한 ‘-는데’는 종결 어미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에 포함될 만큼 해당 어미로 실현된 문장이 높은 비율로 감탄문으로 실현되는가이다. ‘-어/아’는 학교문법에서 인정하는 문장 유형 중, 청유문을 제외한 모든 문장 유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조민하(2015)에서 ‘-어’가 실현된 문장의 문장 유형 빈도를 확인해보면, ‘-어’는 평서문(79.9%), 의문문(13.9%), 명령문(5.1%), 감탄문(2.1%)으로 실현되어 감탄문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렇듯 종결 억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운율 유효적인 종결 어미는 감탄문의 전형적인 종결 어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20대 화자의 해당 어미 사용 가능성이다. 구본관 외(2015)에서는 ‘-(으)ㅂ시다’를 제외한 하오체를 장년 이하의 화자가 쓰면 매우 어색하게 들린다 하였다. 본 연구는 2인대화DB를 연구 자료로 선택하였고, 그 중 20대 화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구려’는 20대 화자가 사용하지 않는 어미라고 판단하여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 기준은 실제 구어 생활에서 주로 쓰이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노대규(1997)에서는 ‘-누나’와 ‘-도다’는 구어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문어체, 특히 시적 허용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연구 목적이 구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누나’와 ‘-도다’는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구먼’과 ‘-구

만’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미지(2015)는 실제 구어 생활에서는 ‘-구먼’보다 ‘-구만’이 많이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구먼’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사용되며, ‘-구만’은 넓은 분포를 보이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먼(요)’과 ‘-구만(요)’를 목록에 포함하였다.

감탄형 종결 어미 실현에 따라 감탄문을 검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감탄문은 모두 서술어를 포함한 문장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공정한 비교 분석을 위해 감탄 표현으로 선정되는 것들도 서술어를 포함한 문장의 형태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탄 표현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여러 종결 어미 중 ‘-다’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민하(2015)는 종결 어미로 실현된 문장들의 종결 억양을 분석하여, 그 문장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표 1-6>은 조민하(2015)의 연구 결과이다.

<표 1-6> 조민하(2015)의 종결 어미의 문장 유형

연번	어미 종류	문장유형(빈도/백분율:%)					합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1	-잖아	302(100)	0	0	0	0	302(100)
2	-(어)야지	18(100)	0	0	0	0	18(100)
3	-르길	8(100)	0	0	0	0	8(100)
4	-르게	7(100)	0	0	0	0	7(100)
5	-군	2(100)	0	0	0	0	2(100)
6	-대	106(96.4)	4(3.6)	0	0	0	110(100)
7	-더라	45(93.8)	0	0	0	3(6.2)	48(100)
8	-다	246(85.7)	0	0	0	41(14.3)	287(100)
9	-데	37(80.4)	4(8.7)	0	0	5(10.9)	46(100)
10	-지	291(80.2)	69(19.0)	3(0.8)	0	0	363(100)
11	-어	1078(79.9)	187(13.9)	55(4.1)	0	29(2.1)	1349(100)
12	-야	417(78.2)	107(20.1)	0	0	9(1.7)	533(100)
13	-구나	43(72.9)	0	0	0	16(27.1)	59(100)
14	-니까	18(50)	18(50)	0	0	0	36(100)
15	-르까	12(41.4)	15(51.7)	0	2(6.9)	0	29(100)
16	-나	22(37.3)	36(61.0)	0	0	1(1.7)	59(100)
17	-냐	8(34.8)	14(60.9)	0	0	1(4.3)	23(100)
18	-르래	1(25)	3(75)	0	0	0	4(100)
19	-니	1(11.1)	6(85.7)	0	0	0	7(100)
20	-디	0	1(100)	0	0	0	1(100)
21	-(어)라	0	0	5(100)	0	0	5(100)
22	-자	0	0	0	9(100)	0	9(100)
합 계		2662(81)	464(14)	63(1.9)	11(0.3)	105(3.2)	3305



<표 1-6>에서 볼 수 있듯 종결 어미로 실현된 감탄 표현 중 ‘-다’로 실현된 감탄 표현<sup>15)</sup>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빈도가 높은 ‘-다’를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단 빈도뿐만이 아니라 ‘-다’는 주로 ‘L%’로 실현되는 대표적인 평서문의 종결 어미다. ‘-다’로 종결된 평서문이 감탄의 기능을 실현하여 감탄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운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로 실현된 감탄 표현은 감탄의 운율적 특성을 분명하게 지닐 것이고,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 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결 어미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군, -군요, -아/어라, -네, -네요,

-구먼, -구먼요, -구만, -구만요’

감탄 표현 종결 어미(평서문 종결 어미): ‘-다’

본 연구에서는 (7)에서 설정한 종결 어미로 끝나는 문장들에 관해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였던 감탄의 특성<sup>16)</sup>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종래의 감탄문이나 감탄 표현의 정의로 인해 연구가 미진했던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과 감탄 표현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자료 특성이나 분석 대상 설정에서 한계를 지녔던 선행 연구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재검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정의를 되짚어보며,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 관해 좀 더 구체 현실에 맞는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15) 조민하(2015)에서는 감탄문이라 서술하였지만, 본 연구의 정의에 따라 감탄 표현으로 서술한다.

16)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였던 감탄의 특성은 ‘감탄사 실현 여부, 평서문과 구분되는 음높이 특성, 감탄의 종결 어미와 종결 억양’이다.

## 2. 연구 방법

### 2.1.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에서 구축한 2인 자유 발화 대화 자료인 ‘2인대화DB’이다. 2인대화DB의 대화 참여자는 표준어 화자 남녀 총 138명(남 66명, 여 72명)으로 주로 20대 화자를 대상으로 구축된 자료이며, 30-70대 화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대화 참여자의 관계는 한쪽 화자(화자A)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다른 쪽 화자(화자B)는 반말을 사용하는 관계로 통제하였다. 대화 참여자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친밀도는 모두 친숙한 관계로 통제하였으며, 친밀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 설문을 통해 대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2인대화DB에서는 녹음 환경을 ‘최소한 귀로 듣기에 잡음이 없는 환경’으로 통제하고 음질 상태가 불량한 경우 말뭉치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대화 참여자는 총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모음 목록을 3초간 발성하는 모음 발성 과제, 대본을 보고 문단을 읽는 낭독 과제 그리고 20분 이상의 자유로운 대화를 수행하는 대화 과제가 있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낭독 과제 자료와 대화 과제 자료를 사용하였다.

#### 2.1.1. 낭독 과제 자료

낭독 과제는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화자가 특정한 문단을 낭독하는 과제로, 모든 화자가 같은 형태의 문단을 낭독하였기 때문에 화자 개별 특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음높이 특성과 비교하기 위한 비교군으로 설정하였다.

낭독 과제의 문단은 다양한 음소가 실현되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9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발화된 문장을 채택하기 위해 가장

가운데 있는 문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문장은 다음과 같다.

‘계란 노른자가 익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다.’

### 2.1.2. 대화 과제 자료

대화 과제 자료는 화·청자 간의 성별 관계, 연령 또는 지위차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서 밝혔던 화·청자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살피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또한 ‘감탄’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자유 발화 상황에서 산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대화 과제 자료를 검토하였다.

대화 과제 자료의 대화 참여자의 주요 연령은 20대이다. 일부 30-70대가 포함되었긴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두 화자가 모두 20대인 경우만 자료로 선정하였다. 다만, 20대 대화 자료 중 본 연구자가 포함된 대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 크기는 <표 2-1>과 같다.

<표 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 크기

항목	내용
대화 참여자	114명(남 57, 여 57)
대화 길이	75,417(초)
총 음절수	362,662
총 어절수	154,896
총 문장수	28,219

총 114명(남 57명, 여 57명)의 대화 참여자는 2인씩조를 이루어 녹음에 참여하

였다. 대화 조는 화·청자의 성별 관계와 존댓말 사용 여부를 고려하여 여(존댓말)-여(반말), 여(존댓말)-남(반말), 남(존댓말)-여(반말), 남(존댓말)-남(반말)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대화 자료의 조 구성에 따라 화자를 화자 성별(여, 남), 존대 여부(+존대, -존대), 청자 성별(여, 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총 8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존댓말을 사용하여 여성에게 발화한 경우 13명, 여성이 존댓말을 사용하여 남성에게 발화한 경우 15명 등과 같이 나열하여 정리하면 <표 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인대화DB의 화·청자 정보

화자 성별	존대 여부	청자 성별	화자 수	합계 (화자 성별)
여	[+존대]	여	13	57
		남	15	
	[-존대]	여	13	
		남	16	
남	[+존대]	여	16	57
		남	13	
	[-존대]	여	15	
		남	13	
합계(전체)			114	

## 2.2. 분석 방법

이 절에서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 분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선행 연구에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특성으로 언급되었던 요소들을 분석하는 기준을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분석이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2.2.1. 감탄문과 감탄 표현 판별 기준

감탄문의 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문장으로 그 판별 기준이 명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감탄 표현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로 실현되는 문장 중, 어떤 것이 감탄 표현으로 실현되었는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함병호(2018)는 ‘감탄사는 후행 문장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하였고, 전영옥(2012)은 ‘감탄사는 상황에 의해 의미가 획득되는 화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 즉, 감탄사는 후속 문장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의미를 보완하는 관계이다. 이에 따라 운율적 측면에서도 감탄사와 문장이 함께 실현되었을 때, 감탄사와 문장이 모두 자연스러운 감탄적 어조로 실현되어야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감탄 표현에서 감탄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감탄사의 실현이 감탄 표현을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 조건이 되진 못한다. 즉, 종결 어미 특성과 감탄사의 실현 모두 감탄 표현을 판별하는 결정적 단서로 설정하기에는 모든 감탄 표현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감탄 표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문장의 운율적 특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감탄 표현의 종결 억양을 연구한 조민하(2011, 2015, 2019)를 제외하면 현재 (자유 발화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감탄 표현의 운율적 특성을 정리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민하의 일련의 연구도 감탄 표현의 종결 억양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전반적인 감탄 표현의 운율적 특성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감탄 표현의 감탄의 운율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감탄 표현의 판별 기준으로 감탄사와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감탄사가 문장과 함께 실현되었을 때, 그들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감탄사와 후행 문장의 운율적 특성도 서로 잘 어울려야 한다. 즉, 어떤 문장의 문두에 감탄의 운율적 특성을 반영한 감탄사를 추가하는 것은 해당 문장이 감탄 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8) 가. 여기도 꽃이 피었다(L%)  
       가'. ? 아~ 여기도 꽃이 피었다(L%)  
       나. 여기도 꽃이 피었다(LH:%)  
       나'. 아~ 여기도 꽃이 피었다(LH:%)

(8)은 같은 형태의 문장을 종결 억양을 달리하여 실현한 예이다. (8가)는 대표적인 평서문의 종결 억양인 'L%'와 함께 쓰여 평서문의 진술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8나)는 간접, 감탄, 이해 등을 나타내는 'LH:%'와 함께 쓰여 '꽃이 피었다'라는 명제 내용을 배경화한 채 화자의 느낌을 드러낸다. 실제로 (8가)와 (8나)의 억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감탄의 기능을 하는 감탄사를 결합해보면 (8가')는 그 실현이 부자연스러운 반면, (8나')는 감탄사와 문장의 억양이 어울려 감탄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2.2. 감탄사와 종결 어미 분석 기준

노대규(1997)에서는 감탄문의 통어적 특성으로 그 문장의 문두에 감탄사가 자주 실현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검출된 감탄문 문장의 문두에 나타나는 감정 감탄사를 확인하였다<sup>17)</sup>. 감정 감탄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최호철(2000)을 참고하였다. 최호철(2000)의 141개의 감정 감탄사 목록은 <표 2-3>과 같다.

17) 최호철(2000)에서 언급한 정인승(1956)은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감탄사 분류라 할 수 있다. 정인승(1956)은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적 느낌씨(감탄사),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의지적 느낌씨, 아무 느낌이나 생각 없이 단순히 입버릇으로 말에 섞여 나오는 입버릇, 말이 얼른 안 나올 때 말을 더듬는 모양으로 아무 뜻 없는 소리로 내는 더듬거림'으로 감탄사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감탄'과 관련 있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탄사의 여러 분류 중 감정 감탄사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2-3> 최호철(2000)의 감정 감탄사 목록

종류	예시
감정 감탄사	아, 아따, 아빨싸, 아아, 아야, 아유, 아으, 아이, 아이고, 아이고머니, 아이고머니나, 아이고아이고, 아이코, 아차, 아차차, 아카사니, 아하, 악, 알라, 알라차, 앓, 애, 애개, 애개개, 애고, 애고고, 애고머니, 애고애고, 애해, 앵, 야, 알라차, 애, 어, 어구머니, 어기야, 어기야디야, 어따, 어렵쇼, 어마, 어마나, 어머, 어마나, 어빨싸, 어야디야, 어어, 어우, 하, 어유, 어이, 어이구, 어이구머니, 어이구머니나, 어이쿠, 어일싸, 어절씨구, 어허, 어화, 얼싸,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나절씨구, 얼씨구절씨구, 엉, 예, 예게, 예게게, 예구, 예구구, 예구머니, 예그, 예그그, 예그나, 예기, 예꾸, 예꾸나, 예쿠쿠, 예크, 예크나, 예키, 예헤, 예후, 액, 엇, 앵, 예기, 예끼, 예라, 예이, 연장, 오, 와, 와와, 우아, 우아우아, 움, 윈, 으아, 으악, 으음, 으응, 음, 이끼, 이끼나, 이야아, 이커서니, 이키, 이키나, 제, 쫓, 쫓쫓, 체, 챗, 치, 하, 하불싸, 하하, 해, 허, 허빨싸, 허허, 헤, 호, 후, 후유, 휴, 흠, 흠흠, 흠, 흥, 흥흥, 흥, 흥흥

오승신(2006)에 따르면 감탄사는 음성의 교체나 반복에 의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호철(2000)의 감정 감탄사 목록을 참고하되, 이형태의 실현을 고려하여 감탄사 판별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그 후 위의 기준에 따라 분석된 감탄사들에 대해서 감탄사의 빈도, 어미별 감탄사 실현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종결 어미 분석 기준이다. 감탄문의 경우 그 종결 어미가 다양하므로 전체 종결 어미별 실현 빈도를 먼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종결 어미 빈도의 최빈값과 최저값을 확인하여 감탄형 종결 어미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화·청자 관계를 고려하여 감탄문과 감탄 표현 종결 어미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때 화·청자 관계는 박지순(2014)에서 설정한 화자의 발화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화자의 성별, 화·청자 간 성별 관계, 화자의 존대 여부’를 고려하여 종결 어미가 실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 2.2.3. 문장 음높이 특성과 종결 억양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음높이 특성은 문장 평균 음높이, 문장 음높이 최저점, 문장 음높이 최고점, 문장 음높이 최고저차이다. 문장의 시작과 끝은 일차적으로 청지각적으로 판단<sup>18)</sup>하고, 이차적으로 첫음절의 파형에서 처음 주기가 나타나는 영교차점을 시작점으로, 그리고 주기가 끝나는 파형의 영교차점을 끝점으로 설정하였다.

구분된 문장에 대하여, Praat version 6.0.37의 pitch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문장 음높이 평균, 문장 음높이 최저점, 문장 음높이 최고점을 확인하였고,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 음높이 최고저차(문장 음높이 최고점-문장 음높이 최저점)를 확인하였다. 측정 시, 기본 음높이 범위(pitch range)는 75Hz~550Hz로 설정하였다. 다만 화자의 성별 특성에 따라 문장 음높이가 반감(pitch halving) 또는 더블링(pitch doubling)<sup>19)</sup>되거나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때는 박한상(2007)을 참고하여 음높이 범위를 수정하여 확인하였다<sup>20)</sup>.

1.2절에 언급하였듯 선행 연구에서는 낭독 과제 자료를 활용하여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음높이가 평서문과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평서문 낭독 과제 자료와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음높이 특성을 비교한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낭독 발화 자료와 자유 발화 자료 간의 비교이므로 그 방법의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그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2차 음높이 분석으로 감탄문, 감탄 표현 그리고 감탄 표현으

---

18) 정밀하고 일관적인 분석을 위해 모든 문장의 시작과 끝 판단은 Shure사의 헤드폰 SRH-940으로 음성을 들으며 진행하였다.

19) praat은 음성 분석을 도와주는 도구로, 파형의 주기를 확인하여 음높이를 검출한다. 1초에 몇 번의 주기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음높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praat에서 얼마만큼의 파형을 하나의 주기로 분석하는지는 음높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화자의 음높이 범위와 맞지 않게 음높이 범위를 설정한다면 praat에서 주기를 잘못 잡는 오류가 생기고 음높이 반감(주기를 크게 잡아 음높이가 낮아짐) 또는 더블링(주기를 짧게 잡아 음높이가 높아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 박한상(2007)에서는 음높이를 측정할 때, 남성의 경우 하한 주파수를 75Hz로 여성의 경우 120Hz로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



로 실현되지 않은 평서문의 음높이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자유 발화 자료 간 음높이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종결 억양의 분석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Jun(2000)의 K-ToBI 기준을 참고하여 종결 억양 분석을 진행하였다. K-ToBI는 영어 ToBI 방식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한국어 표준어 운율 전사를 위해 마련된 운율 기술 규약이다. 청지각적으로 유의미하게 변별되는 음높이 단계(pitch level)에 따라 ‘H’ 또는 ‘L’의 양분 체계로 운율을 설명하며, 이때 H와 L은 주변 음절의 음높이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종결 억양은 어미의 마지막 음절에 실려서 문장의 의미나 유형을 변별하는 음높이의 구성을 말한다. 종결 억양의 종류에는 H나 L이 하나만 실현되는 단일 성조와 두 개 이상의 H와 L이 결합하여 실현되는 굴곡 성조가 존재한다.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수의 성조들이 결합하여 복잡한 굴곡 성조가 실현될 수 있으나, 4개 이상의 성조 결합은 실제 구어 데이터에서는 자주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종결 억양의 설정 기준은 언어적으로 유의미한 의미 변별을 실현하는지의 여부인데, 4개 이상의 성조가 결합한 종결 억양이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는 의심해 볼 만하다. 실제 본 연구에서 관찰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데이터에서도 1개 혹은 2~3개의 성조 결합으로 실현된 종결 억양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결 억양은 ‘L%, H%, HL%, LH%, LHL%, HLH%’이며, 종결 억양의 장음화 여부<sup>21)</sup>에 따라 ‘L:%, H:%, HL:%, LH:%’를 추가하였다<sup>22)</sup>.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

21) 박미경(2016)은 장음화에 대해, ‘청자가 인식하는 음절의 길이 변화는 청자의 직관에 기준을 둔다. 따라서 청자가 장음이나 장음화를 인식한다는 것은 주변음에 비해 혹은 청자가 기대하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장음화를 청지각적으로 판단하며, 주변음과 비교하여 길어졌다고 판단되는 것을 장음화로 정의하였다.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안병섭(2008: 61)에서 언급한 ‘장음화된 음은 1.2-1.8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청지각적으로 장음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발화 말 음절에 대해, 해당 음절이 억양구 내, 음운구 내의 다른 음절의 길이에 비해 1.2배 이상 길어졌는지를 재검증하였다.

22) 굴곡 성조는 두 개 이상의 성조가 모여 실현되는 것으로, 하나의 성조만 실현된 것에 비해 그 음길이가 길어진다. 실제 본 연구에서 관찰한 종결 억양에서도 HL%, LH%, LHL%, HLH%는 단일 성조인 L%, H%보다 장음화 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종결 억

는 ‘L%, L:%, H%, H:%, HL%, HL:%, LH%, LH:%, LHL%, HLH%’를 설정하고 청지각적 판단을 통해 문장의 종결 억양을 분석하였다.

종결 억양의 분석 기준은 조민하(2011)를 참고하였다. 조민하(2011 : 180)에서는 발화 말 경계 성조에 실현된 의미 기능을 <표 2-4>와 같이 제시한다.

<표 2-4> 조민하(2011: 180)의 발화 말 경계 성조에 실현된 의미 기능

억 양	M:	L	LHL	LH	H	L:	HL:
기 능	미정	진술	단언	간접적 반응유도	직접적 반응유도	암시	감탄

<표 2-4>의 종결 억양 목록과 본 연구의 종결 억양 목록의 가장 큰 차이는 M의 설정 문제이다. K-ToBI는 청지각적으로 변별되는 운율적 특성을 ‘H’와 ‘L’의 양분 체계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조민하(2011)에서는 이 양분 체계가 ‘H’와 ‘L’로 구분할 수 없는 중간 단계의 단계를 서술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M’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H’와 ‘L’ 사이에서 ‘M’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M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다른 차이는 HL%와 LH:%가 없다는 것이다. 신지영(2017)은 종결 억양의 양태 기능을 설명하며 ‘LH%’는 놀라거나 감탄하는 태도(저조의 길이가 길고 고조의 높이가 높아서 기울기가 급할 때)라고 서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H%, LH:%’의 차이를 장음화 여부의 차이라고 보고 조민하(2011)에서 서술한 의

---

양 목록에는 HL:%와 LH:%만을 추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HL%나 LH%는 장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관찰되었으나, LHL%, HLH%는 모두 장음화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미 기능을 적용하였다. 즉, ‘LH:’는 ‘LH%’보다 강한 감탄의 표현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HL%’의 경우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청자 반응 유도 기능과 감탄의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표 2-5>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 본 연구에서 종결 억양의 기능이다.

<표 2-5>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서 나타나는 억양의 기능

억양	H:	H	HL:	HL	HLH	L:	L	LH:	LH	LHL
기능	직접적 반응 유도, 강한 놀람	직접적 반응 유도, 질문	감탄	감탄, 반응 유도	비꼼, 감탄	간접, 암시	진술	감탄, 이해, 간접	감탄, 이해, 간접	단언

본 연구에서는 <표 2-5>에서 정리된 종결 억양들을 기능에 따라 다시 세분하였다. 감탄문이나 감탄 표현은 모두 화자의 느낌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다. 즉, 화자의 주관적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정서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청자와 동등한 위치이거나 청자가 화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결 억양을 화자가 감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지,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유도하여 청자를 포함시켜 발화하는지에 따라 직접적 억양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화자가 간접적으로 감탄을 표현하는 경우 간접적 억양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 없이 단순히 진술의 기능을 실현한 종결 억양의 경우 중립적 억양으로 분류하였다.

위의 기준에 따라 종결 억양을 구분하면 직접적 감탄의 억양에 ‘HL:’, HL%, HLH%, LHL%’가 포함되었다. 간접적 억양에는 ‘L:’, LH:’, LH%’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중립적 억양에 ‘L%’를 포함하였다. ‘H%’의 경우 감탄사 실현 여부와 감탄사와의 결합 가능성을 판별하여 해당 문장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면 직접적 억양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직접적 억양에 ‘H, HL:, HL, HLH, LHL%’가 간접적 억양에 ‘L:, LH:, LH%’가, 중립적 억양에 ‘L%’가 포함되었다.

#### 2.2.4. 문장 분류 기준

1.3절 (5)에서 서술한 것처럼 어떠한 문장이 반드시 그 문장 유형의 주기능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9) 가. 네가 철수구나(HL:%)  
가’. 네가 철수구나(L%)

(9가)는 대표적인 감탄의 종결 억양인 ‘HL:~’를 사용하여, 화자가 어떠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감탄을 표현하는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 문장이다. 그러나 (9가’)는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감탄문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9가’)는 진술의 ‘L%’로 실현하여, 단순히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감탄문으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 유형의 분류뿐만 아니라 감탄의 기능이 실현되었는지를 살폈고, 결과적으로 총 4개의 문장 분류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1.3절의 종결 어미 목록을 기준으로 문장 유형에 따라 평서문과 감탄문을 분류하였다. 즉,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것은 감탄문으로 분류하고, 평서형 종결 어미인 ‘-다’를 사용한 것은 평서문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종결 어미에 따라 분류된 문장들에 대해서, 감탄 기능의 실현을 판단하였다. 감탄의 기능을 실현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감정 감탄사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감정 감탄사가 함께 실현된 것은 감탄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감탄사가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음높이 특성, 종결 억양, 장음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탄사 결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표 2-6> 예 (9)의 문장 분류

번호	문장	감탄사	굴곡 성조	장음화	감탄사 결합 가능성	문장 분류
가	그랬구나 (L%)	X	X	X	X	감탄 기능 외 감탄문
나	그랬구나 (HL:%)	X	O	O	O	감탄 기능의 감탄문
다	아 그랬구나 (L%)	O	X	X	O	감탄 기능의 감탄문
라	예쁘다 (L%)	X	X	X	X	감탄 기능 외 평서문
마	예쁘다 (LH%)	X	O	X	O	감탄 기능의 평서문
바	와 예쁘다 (L%)	O	X	X	O	감탄 기능의 평서문

<표 2-6>은 분류 기준에 따라 4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먼저, (가)와 (라)는 감탄사, 굴곡 성조, 장음화가 모두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감탄 기능이 없다고 분류되었다. 반면 (나)와 (마)는 감탄사가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감탄 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나)는 굴곡 성조와 장음화가 실현되었고, (마)는 굴곡

성조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문장 앞에 여러 감정 감탄사를 붙여서 자연스러운지를 고려했을 때 모두 자연스럽게 실현이 되었다. (다)와 (바)는 굴곡 성조와 장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감탄사가 실현되어 감탄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다)와 (바)와 같은 유형의 문장들은 감탄사에 감탄의 운율이 강하게 실현되거나, 문장의 음높이 특성에서 감탄의 음조가 실현된 문장들이었다.

## 2.2.5. 감탄문과 감탄 표현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2.1.~2.2.4. 절의 기준에 따라 감탄문과 감탄 표현을 분석하였다. 먼저 (7)의 종결 어미 목록을 기준으로 2인대화DB에서 문장 표본을 검출하였다. 자세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Python 3.7.2를 활용하여 전체 문장 28,219개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다.
- ② 전체 음성 파일의 전사 자료를 문장 단위로 구분한다. 문장 단위 구분은 구두점(마침표와 물음표)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구나, -군, -군요, -네, -네요, -구면, -구면요, -구만, -구만요, -다’처럼 이형태가 없는 종결 어미는 그 형태를 그대로 검색한다. 그러나 ‘-아/어라’처럼 이형태가 있는 종결 어미는, 형태 변화가 없는 ‘-라’로 끝나는 문장을 검색하여, 해당 문장이 감탄형 종결 어미 ‘-아/어라’로 종결되었는지를 판단한다.
- ④ 선행 연구에서는 ‘-로-, -더-, -습니-’등과 같은 선어말 어미와 결합한 종결 어미를 하나의 독립된 종결 어미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로구나, -더구나, -습니다...’ 등과 같은 어미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미와 다른 어미라고 가정하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⑤ 음높이 분석을 위해서, 겹침 발화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결 어미로 실현된 문장은 총 962개(남 493개, 여 469개)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2인대화DB 자료 구조에 따른 문장 빈도 정리

화자 성별	존대 여부	청자 성별	문장	소계 (존대 여부)	소계 (화자 성별)	총계
여	[+존대]	여	90	177	469	962
		남	87			
	[-존대]	여	102	292		
		남	190			
남	[+존대]	여	111	214	493	
		남	103			
	[-존대]	여	142	279		
		남	137			

<표 2-7>과 같이 검출된 문장에 대해 2.2.5.절에 제시한 절차에 맞게 먼저 감탄 문과 감탄 표현을 검출하고, 검출된 문장들에 대해 음높이 특성, 감탄사 실현 여부, 종결 억양 등을 측정하였다.

종결 억양 측정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판단 회차 사이에는 2~3일 정도 간격을 두어 진행하였으며, 각 회차에서 종결 억양을 판단할 때는 전체 문장, 종결 억양이 들어있는 어절, 다음 문장과 비교하며 음높이 변동을 확인하고 종결 억양을 판단하였다. 종결 억양의 판단 기준은 청지각적 판단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피치 곡선의 모양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장에 대해 감탄사 결합 가능성을 판단하여 감탄 기능 실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감탄사 결합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감탄사와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였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화자가 산출한 여러 감탄사를 문장 앞에 합성하여 자연스러움을 판단하였다.

###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정밀한 검증을 위해 다양한 통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된 자료 유형에 맞게 통계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R version 3.6.1을 활용하였다.

#### 3.1. 감탄문과 감탄 표현

2.2.4. 절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검출된 문장들을 분류하면 <표 3-1>의 결과와 같다.

<표 3-1>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

문장유형	평서문	평서문	감탄문	감탄문
감탄기능	X	O	X	O
문장수	250	193	63	456
비율(%) <sup>23)</sup>	56.4	43.6	12.1	87.9
계	443		519	

‘-다’로 실현된 평서문은 총 443개로, 이 중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평서문은 250개(56.4%),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 평서문(감탄 표현)은 193개(43.6%)였다. 감탄문은 총 519개로, 이 중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감탄문은 63개(12.1%),

---

23)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다.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 감탄문은 456개(87.9%)였다.

화자의 성별에 따라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화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살펴본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

문장유형	평서문		평서문		감탄문		감탄문	
감탄기능	X		O		X		O	
화자성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문장수	124	126	<u>117</u>	76	30	33	198	<u>258</u>
비율(%)	49.6	50.4	<u>60.6</u>	39.4	47.6	52.4	43.4	<u>56.6</u>
계	250		193		63		456	

분석 결과 감탄의 기능을 실현하지 않은 것에서는 문장 유형에 따른 성별 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감탄의 기능을 수행했을 때는 문장 유형에 따른 성별 차가 드러났다. 먼저, 감탄 표현의 경우 여성의 문장 수가 117개(60.6%)로 남성의 76개(39.4%)보다 높았다. 감탄문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여성의 문장 수가 198개(43.4%)로 남성의 258개(56.6%)보다 낮았다.

다음은 화·청자의 성별 관계를 고려하여 살펴본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를 살펴보았다. <표 3-3><sup>24)</sup>의 합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성이 여성에게 말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즉, 화·청자의 성별이 다를 때 문장 수가 더 많이 검출되었다. 문장 유형 및 감탄 기능 실현에 따라서는 화·청자 성별과 관계없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 감탄문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24)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며, 빈도(비율)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표 3-3> 화·청자 성별 관계를 고려하여 살펴본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

성별		문장 유형 및 감탄 기능 실현				계
화자	청자	평서문	평서문	감탄문	감탄문	
		X	O	X	O	
여	여	51(26.6)	61(31.8)	14(7.3)	<b>66(34.4)</b>	192(100)
	남	73(26.4)	56(20.2)	16(5.8)	<b>132(47.7)</b>	<b>277(100)</b>
남	여	71(28)	43(17)	19(7.5)	<b>120(47.4)</b>	<b>253(100)</b>
	남	55(22.9)	33(13.8)	63(26.2)0	<b>138(57.5)</b>	240(100)

존대 여부에 따라서는 감탄 기능 외 감탄문을 제외하면 모두 반말이 존댓말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반말을 사용하는 화자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화자에 비해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문장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더 용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4> 존대 여부를 고려하여 살펴본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에 따른 문장 수

문장유형	평서문		평서문		감탄문		감탄문	
감탄기능	X		O		X		O	
존대여부	+	-	+	-	+	-	+	-
문장수	80	<b>170</b>	67	<b>126</b>	<b>38</b>	25	206	<b>250</b>
비율(%)	32	<b>68</b>	34.7	<b>65.2</b>	<b>60.3</b>	39.7	45.2	<b>54.8</b>
계	250		193		63		456	

## 3.2.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분석 결과

### 3.2.1.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감탄사 실현

분석 결과 감탄사는 962개의 문장 중 총 386개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개수는 ‘아’ 217개, ‘음’ 47개, ‘어’ 27개, ‘오’ 18개, ‘와’ 14개, ‘하’ 12개 등이 10개 이상 검출되었고 그 외 ‘히, 우와, 야, 아하, 흠, 어머, 에이, 으, 으음, 쫓, 헐, 딱, 씹, 아니, 아휴, 어우, 어우야, 와우, 움, 응, 이, 저런, 커, 헉, 해’ 등이 한 자릿수 빈도로 검출되었다. 즉, 본 자료에서 나타난 감탄사의 형태는 총 31개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했지만, 특정 감탄사(‘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10번 이상 실현된 감탄사도 6개밖에 되지 않았다.

<표 3-5>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른 감탄사 실현 빈도

문장유형	평서문		평서문		감탄문		감탄문	
감탄기능	X		O		X		O	
감탄사	X	O	X	O	X	O	X	O
문장수	249	1	71	122	63	0	193	263
유형별 감탄사 출현율(%)	0.004%		63.21%		0%		57.68%	

<표 3-5>의 결과처럼 감탄의 기능을 수행할 때,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탄사 출현율이 증가하였다. 수치적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감탄 기능 외 평서문은 감탄사 실현이 0.004%, 감탄 기능의 평서문은 63.21%였다. 마찬가지로 감탄문의 경우 감탄 기능 외 감탄문은 감탄사 실현이 0%, 감탄 기능의 감탄문은 57.6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화자의 성별과 존대 여부에 따라 감탄사의 실현을 살펴보면 <표 3-6>과 <표

3-7>과 같다.

<표 3-6> 화자 성별에 따른 감탄사 실현

	여	남
감탄사 실현	189(40.3)	197(40)
감탄사 비실현	280(59.7)	296(60)
합계	469(100)	493(100)

<표 3-7> 존대 여부에 따른 감탄사 실현

	[+존대]	[-존대]
감탄사 실현	156(39.9)	230(40.3)
감탄사 비실현	235(60.1)	341(59.7)
합계	391(100)	571(100)

<표 3-6>, <표 3-7>를 살펴보면, 화자의 성별이 남자일 때와 화자가 반말을 사용할 때 감탄사의 실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감탄사의 실현을 비율로 나타내 보면, 화자 성별과 존대 여부가 감탄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 제곱 검정 결과 또한 화자 성별에 따른 감탄사 실현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면 둘 사이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p\text{-value} = 0.9669$ ). 마찬가지로 존대 여부에 따른 감탄사 실현에서도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p\text{-value} = 0.9586$ ).

다음은 감탄사와 종결 어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표 3-8>은 감탄형 종결 어미와 감탄 표현의 종결 어미로 설정된 ‘-다’에서의 감탄사 실현을 살핀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위 6개를 제외하면 그 검출된 수가 적기 때문에, <표 3-8>에는 상위 6개의 감탄사만을 포함하였다.

<표 3-8> 감탄사와 종결 어미 실현

	-구나	-구만	-군	-군요	-네	-네요	-다	합계
아	<b>74</b>	1	3	4	49	25	61	217
음	10	1	1	2	<b>16</b>	11	6	47
어	4	0	0	0	<b>11</b>	4	8	27
오	1	0	0	3	4	2	<b>8</b>	18
와	0	0	0	0	4	3	<b>7</b>	14
하	1	0	0	0	3	2	<b>6</b>	12
기타	7	0	1	1	11	4	27	51
합계	97	2	5	10	98	51	<b>123</b>	386

감탄사와 종결 어미 실현을 살펴보면, 상위 6개의 감탄사가 주로 나타나는 종결 어미들이 존재하였다. 먼저 감탄사 ‘아’는 ‘-구나’를 통해 종결되는 문장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음’과 ‘어’는 ‘-네’를 통해 종결되는 문장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나머지 ‘오’, ‘와’, ‘하’의 경우는 ‘-다’를 통해 종결되는 문장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 3.2.2. 감탄문의 종결 어미 실현

본 연구에서는 ‘-구나, -군, -군요, -아/어라, -네, -네요, -구먼, -구먼요, -구만, -구만요’를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으로 설정하였다. 2절의 분석 절차를 거쳐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된 문장을 검색하였을 때, 총 519개의 문장이 검출되었고, 이들의 어미별 분포는 <표 3-9>과 같다.

<표 3-9> 감탄문의 종결 어미 분포

종결 어미	-구나	-군	-군요	-아라/ 어라	-네	-네요	-구먼	-구먼요	-구만	-구만요
문장수	150	11	23	0	203	126	0	0	6	0
빈도 (%)	28.9%	2.2%	4.4%	0%	39.1%	24.3%	0%	0%	1.2%	0%

감탄형 종결 어미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종결 어미는 ‘-네(39.1%)’였다. 그 뒤를 이어 ‘-구나(28.9%), -네요(24.3%)’가 나타났으며, 이 세 종결 어미가 전체의 92.3%를 차지하였다. ‘-군, -군요, -구만’의 경우 각각 4.4%, 2.2%, 1.2%만큼 실현되어 상대적으로 저빈도 값을 보였다. 반면, ‘-아라/어라’와 ‘-구먼(요), ‘-구만요’의 경우 본 자료에서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다.

감탄문의 종결 어미 분포 분석 결과 ‘-네, -구나, -네요’의 상위 3개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음 살펴볼 화·청자 관계를 고려한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는 이 세 종결 어미를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3-10>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화·청자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상위 3개 감탄형 종결 어미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표 3-10> 화·청자 관계를 고려한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화자성별	존대여부	청자성별	-구나	-네	-네요	총계
여	[+존대]	여	12	13	12	37
		남	3	10	43	56
	[-존대]	여	14	24	0	38
		남	34	47	1	82
남	[+존대]	여	15	20	29	64
		남	12	10	37	59
	[-존대]	여	30	30	2	62
		남	30	49	2	81
총계(어미별)			150	203	126	476

<표 3-10>은 변수가 많아 그 구성이 복잡하다. 따라서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화자 성별, 화·청자 성별, 존대 여부에 따라 세분하면 <표 3-11>, <표 3-12>, <표 3-13>과 같다.

<표 3-11> 화자 성별에 따른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구나	-네	-네요	합계
여	63	94	56	213
남	87	109	70	266
합계	150	203	126	479

화자 성별에 따른 종결 어미 실현을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화자 성별과 종결 어미 실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value = 0.7234). 즉, 전반적으로 남성이 감탄문 산출이 많은 것을 제외하면, 화자 성별에 따른 종결 어미 실현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표 3-12> 화·청자 성별에 따른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화자성별	청자성별	-구나	-네	-네요	합계
여	여	26	37	12	75
여	남	37	57	44	138
남	남	42	59	31	132
남	여	45	50	39	134
합계		150	203	126	479

화·청자 성별에 따른 종결 어미 실현을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두 변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text{-value} = 0.001745$ ). <표 3-12>의 결과를 살펴보면, 화·청자의 성별이 다르거나, 남자가 남자에게 감탄문을 산출하는 경우 문장의 수가 비슷하게 높았으며, 여자가 여자에게 감탄문 산출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존대 여부에 따른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구나	-네	-네요	합계
[+존대]	42	53	121	216
[-존대]	108	150	5	263
합계	150	203	126	479

존대 여부에 따른 종결 어미 실현을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두 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text{-value} < 2.2e-16^{25}$ ).

먼저, ‘-구나’의 경우 [+존대]에서 42개, [-존대]에서 108개가 나타나 주로 반말을 사용하는 화자들이 많이 선택한 어미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네’도 [+존대]

25) 2.2에 대해  $10^{-16}$ 을 곱해주면 된다. 즉  $2.2e-16$ 은 2.2에 대해 소수점 자리를 앞으로 16번 만큼 옮긴 0.00000000000000022와 같은 수를 지칭한다.



53개, [-존대] 150개로 반말을 사용하는 화자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반면 ‘- 네요’는 [+존대] 121개, [-존대] 5개로 압도적으로 존대로 실현되었다. [-존대]로 실현된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장난을 치는 경우로 실제 ‘- 네요’는 [+존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3.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운율적 특성 분석 결과

#### 3.3.1.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음높이 특성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음높이 특성에 관해 언급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면, 대부분 낭독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는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를 비교하여 감탄문이나 감탄 표현의 음높이 특성이 다른 유형과 다르다는 서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료 간 분석을 시도하여, 자유 발화 대화 자료의 음높이 특성과 화자별 낭독 과제 자료의 문장 음높이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때, 화자별로 자유 발화 문장과 낭독 과제 문장을 짝을 지어,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Paired T-test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고, 화자 별로 대화 자료와 낭독 자료를 짝을 지어 음높이 특성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음높이에 대해 따로 표준화는 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문장 분류와 상관없이 자유 발화가 낭독 발화보다 문장 평균 음높이가 높게 나타났고, 최저점은 낮고, 최고점은 높았다. 자연스럽게 최고저차도 자유 발화 자료가 낭독 발화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p\text{-value} < 0.001^{**}$ ). 즉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은 평서문보다 음높이 평균이 높고, 최저점이 낮으며, 최고점이 더 높고, 최고저차가 크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낭독 과제 자료와 자유 발화 과제 자료인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 간 비교로,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 즉, 자료 유형에 따른 차이인지 실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특성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장 분류에 따라 서로 음높이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증이 필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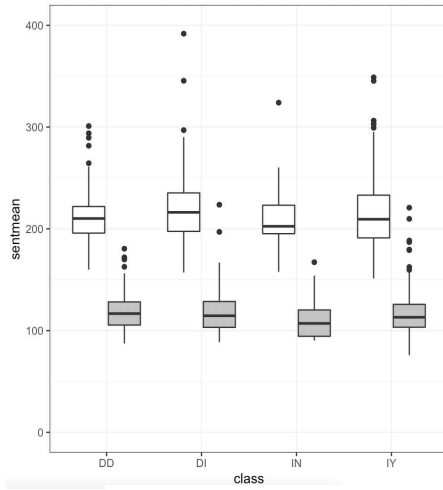
였다.

다음은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문장 분류에 따른 음높이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3-1>은 순서대로 문장 분류에 따른 문장 평균 음높이, 문장 음높이 최저점, 문장 음높이 최고점, 문장 음높이 최고저차의 박스 플롯을 제시한 것이다. 각 도표에서 X축은 감탄 기능의 실현과 문장 유형<sup>26)</sup>을 의미하며, Y축은 음높이(Hz)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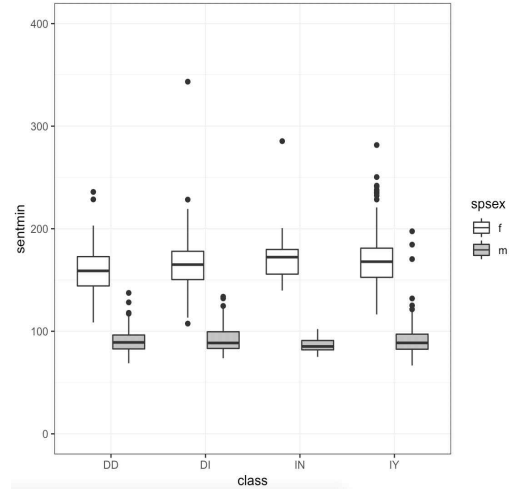
<그림 3-1>의 도표들을 살펴보면, 문장 분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육안으로만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정밀한 확인이 되지 못하므로, 통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자유 발화 자료를 분석한 음높이 자료에 그대로 통계 분석을 적용하기 전, 화자 간, 성별 간 음높이 특성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료를 동등한 범주 아래에 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화자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여 각각 Z-score를 활용하여 음높이를 표준화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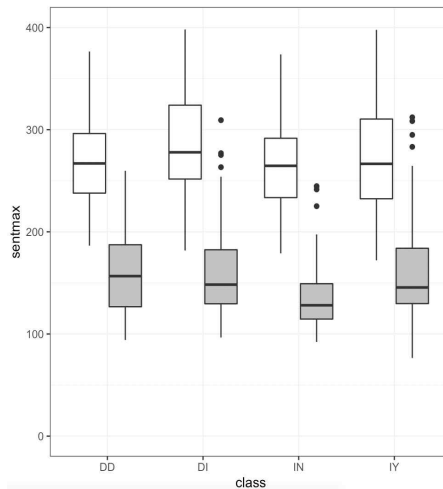
26) DD: 감탄 기능 외 평서문, DI: 감탄 기능의 평서문(감탄 표현),  
IN: 감탄 기능 외 감탄문, IY: 감탄 기능의 감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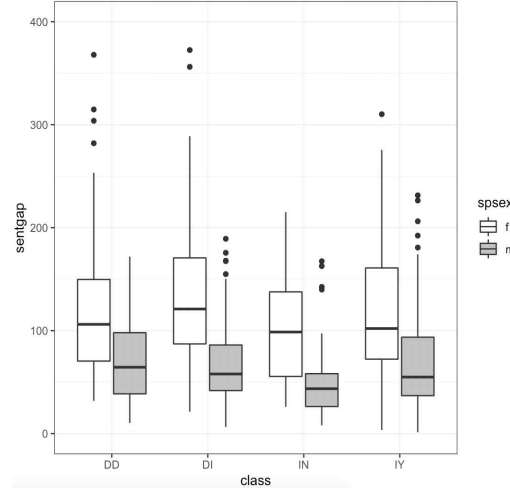
<문장 평균 음높이>



<문장 음높이 최저점>



<문장 음높이 최고점>



<문장 음높이 최고저차>

<그림 3-1>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 여부에 따른 음높이 특성

그 후 문장 분류와 음높이 특성 간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1-way ANOVA Test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장 음높이 평균의 경우 유형 간 차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0542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기준인 0.05 보다는 약간 크지만 확인할 가

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후 검증을 진행하였다. 사후 검증에는 TukeyHSD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4>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유형 간 문장 음높이 평균 검증 결과

	diff	p-adj	mark
DI-DD	0.1678459	0.2950189	
IN-DD	-0.2140401	0.4241651	
IY-DD	0.0367281	0.9660260	
IN-DI	-0.3818861	0.0418969	*
IY-DI	-0.1311178	0.4190570	
IY-IN	0.2507682	0.2411849	

<표 3-14>처럼 모든 유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p-value < 0.05’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감탄 기능의 평서문(DI)이 감탄 기능 외 감탄문(IN)보다 문장 평균 음높이가 높다는 것이었다(p-value = 0.0418969 \*). 이는 기존에 평서문보다 감탄문이 문장 평균 음높이가 높다는 선행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감탄의 기능을 실현한 평서문이 감탄의 기능을 실현하지 않은 감탄문보다 더 높은 평균 음높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장 유형보다 감탄의 기능 실현이 문장 음높이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다음은 문장 음높이 최저점에 대한 검증이다. 통계 분석 절차는 이전과 동일하다. 1-way ANOVA Test 결과, 문장 분류 간 음높이 특성의 유의확률은 0.048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Tukey-HSD를 활용하여 사후 검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5>와 같다.

<표 3-15>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유형 간 문장 음높이 최저점 검증 결과

	diff	p-adj	mark
DI-DD	0.1331329	0.5035912	
IN-DD	0.0979689	0.8982115	
IY-DD	0.2190054	0.0274006	*
IN-DI	-0.0351640	0.9949500	
IY-DI	0.0858725	0.7476451	
IY-IN	0.1210365	0.8031010	

문장 음높이 최저점의 경우는 감탄 기능의 감탄문(IY)이 감탄 기능 외 평서문(DD)보다 더 높은 최저점을 지녔다 (p-value = 0.0274006 \*). 그 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감탄 기능의 감탄문이 감탄 기능 외 평서문 보다 음높이 최저점이 높은 것은 선행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문장 음높이 최고점은 1-way ANOVA Test 결과, 자료 유형 간 유의확률이 0.0578이었다. 위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0.05보다는 크지만 판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Tukey-HSD를 통해 사후 검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6>과 같다.

<표 3-16>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유형 간 문장 음높이 최고점 검증 결과

	diff	p-adj	mark
DI-DD	0.1102793	0.6559116	
IN-DD	-0.2836361	0.1820799	
IY-DD	0.0249985	0.9899118	
IN-DI	-0.3939154	0.0333293	*
IY-DI	-0.0852807	0.7517687	
IY-IN	0.3086247	0.0980734	.

<표 3-16>과 같이 문장 음높이 최고점의 경우, 감탄 기능의 평서문(DI)이 감탄 기능 외 감탄문(IN)보다 더 높은 최고점을 지녔다. (p-value = 0.0333293 \*) 또한, 감탄 기능의 감탄문(IY)이 감탄 기능 외 감탄문(IN)보다 더 높은 최고점을 지녔다. (p-value = 0.0980734 ·) 즉, 감탄 기능 외 감탄문(IN)은 감탄 기능이 있는 다른 모든 표현보다 최고점이 낮았다.

마지막은 문장 음높이의 최고저차이다. 마찬가지로 1-way ANOVA Test를 먼저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336이었다. Tukey-HSD를 통한 사후 검증 결과는 <표 3-17>과 같다.

<표 3-17>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유형 간 문장 음높이 최고저차 검증 결과

	diff	p-adj	mark
DI-DD	0.0663656	0.8993948	
IN-DD	-0.3444401	0.0683713	·
IY-DD	-0.0639075	0.8474350	
IN-DI	-0.4108058	0.0238512	*
IY-DI	-0.1302732	0.4260934	
IY-IN	0.2805326	0.1556006	

위의 결과와 같이 감탄 기능 외 감탄문(IN)은 감탄의 기능과 상관없이 모든 평서문에 비해 최고저차가 더 작았다.

### 3.3.2.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종결 억양 실현

본 절에서는 문장 분류에 따라 종결 억양의 실현을 살펴도록 할 것이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특성인 장음화 여부와 굴곡 성조의 실현을 살펴보고, 나아가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종결 어미별 종결 억양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화·청자 관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종결 억양 분류에 따라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종결 억양 실현에 있어 화·청자 관계의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표 3-18>은 문장 분류에 따른 장음화 실현 여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18> 문장 분류에 따른 장음화 실현

문장유형		평서문	평서문	감탄문	감탄문
감탄기능		X	O	X	O
장음화	O	35	122	0	272
	X	215	71	63	184
유형별 장음화 비율(%)		10	<u>63.2</u>	0	<u>59.6</u>
전체 장음화 비율(%)		<u>35.4</u>		<u>52.4</u>	

<표 3-18>에 보이는 것처럼 장음화의 실현은 문장 분류 별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문장 분류 별로 살펴보면, 감탄 기능의 평서문이 63.2%로 장음화 실현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감탄 기능의 감탄문이 59.6%로 장음화가 실현되었다. 감탄 기능 외 평서문은 10%만 장음화가 실현되었고, 감탄 기능 외 감탄문은 0% 장음화가 실현되어 감탄의 기능에 따라 장음화 실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감탄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 유형만으로 분류하여 장음화 실현을 살펴보면 평서문은 35.4%, 감탄문은 52.4%로 장음화가 실현되어 감탄문이 종결 억양 장음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9> 문장 분류에 따른 굴곡 성조 실현

문장유형		평서문	평서문	감탄문	감탄문
감탄기능		X	O	X	O
굴곡성조	O	20	117	0	361
	X	230	76	63	95
유형별 굴곡성조 비율(%)		8	<u>60.6</u>	0	<u>79.2</u>
전체 굴곡성조 비율(%)		<u>30.9</u>		<u>69.6</u>	

<표 3-19>의 결과처럼, 굴곡 성조 또한 문장 분류 별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문장 분류 별로 살펴보면 감탄 기능의 감탄문에서 굴곡 성조 실현율이 79.2%로 가장 높았고, 감탄 기능의 평서문에서 60.6%로 다음을 이었다. 감탄 기능 외 평서문과 감탄문은 각각 8%, 0%로 굴곡 성조가 실현되어, 감탄 기능이 있는 문장 분류보다 확연하게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감탄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 유형만으로 분류하여 굴곡 성조 실현을 살펴보면 평서문은 30.9%, 감탄문은 69.6%로 굴곡 성조가 실현되어, 감탄문이 종결 억양 굴곡 성조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감탄형 종결 어미에 따른 종결 억양 실현과, ‘-다’로 실현된 평서문의 감탄 기능에 따른 종결 억양 실현 양상이다. 이를 위해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에 존재하는 모든 어미와 그 어미의 종결 억양 실현을 조합하였고, ‘-다’의 경우 감탄 기능 여부에 따라 실현된 모든 종결 억양을 조합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는 <표 3-20>과 <표 3-21>과 같다.



<표 3-20> 감탄형 종결 어미에 따른 종결 억양 실현

	H:	H	HL:	HL	HLH	L:	L	LH:	LH	LHL	계
구나	0	3	44	21	1	22	11	22	5	21	150
구만	0	0	2	2	0	0	1	0	0	1	6
군	0	0	6	2	0	1	2	0	0	0	11
군요	0	1	8	6	0	0	1	2	3	2	23
네	0	14	31	34	5	20	24	40	23	12	203
네요	0	17	6	13	0	9	32	14	32	3	126
계	0	35	97	78	6	52	71	78	63	39	519
비율 (%)	0	6.7	18.7	15	1.2	10	13.7	15	12.1	7.5	100
억양 그룹	35		175		6	123		141		39	519

먼저 감탄형 종결 어미의 억양을 **억양 그룹**<sup>27)</sup>에 따라 살펴보면 ‘HL%’ 군이 가장 많았고, ‘LH%, L%, LHL%, H%, HLH%’ 군 순으로 종결 억양이 출현하였다. 장음화 여부를 고려하면 ‘HL:%, HL%, LH:%, LH%, L%, L:%, LHL%, H%, HLH%’ 순으로 나타났다.

어미에 따른 종결 억양 실현을 살펴보면, ‘-구나, -군, -군요’ 등의 종결 어미는 ‘HL:%’가 가장 많았고, ‘-구만’의 경우는 ‘HL:%’와 ‘HL%’가 동등하게 나타나며 가

27) 억양 그룹: 장음화 여부 고려하지 않고 성조의 구성 형태에 따라 억양을 묶은 것)

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 네’는 ‘LH: %’가 가장 많았고, ‘- 네요’의 경우 ‘L %’와 ‘LH %’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평서문 종결 어미 ‘- 다’를 통해 실현된 문장의 종결 억양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감탄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평서문의 종결 억양 실현을 살핀 후, 감탄의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종결 억양 실현을 살필 것이다. 해당 결과는 <표 3-21>, <표 3-22>를 통해 제시하였다.

<표 3-21> 평서문의 종결 억양

	H:	H	HL:	HL	HLH	L:	L	LH:	LH	LHL	계
빈도	0	46	1	10	0	56	204	79	26	21	443
비율 (%)	0	10.4	0.2	2.3	0	<u>12.6</u>	<u>46</u>	17.8	5.9	4.7	100

<표 3-21>를 통해 ‘- 다’로 종결된 평서문의 종결 억양을 살펴보면, ‘L %’의 실현이 전체의 46%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음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L %’ 억양 그룹이 총 58.6%로 실현되었다.

<표 3-22> 감탄 기능 수행 여부에 따른 평서문의 종결 억양

감탄 기능 외 평서문											
	H:	H	HL:	HL	HLH	L:	L	LH:	LH	LHL	계
빈도	0	46	0	9	0	28	156	5	4	2	250
비율 (%)	0	18.4	0	3.6	0	<u>11.2</u>	<u>62.4</u>	2	1.6	0.8	100
감탄 기능의 평서문 (감탄 표현)											
	H:	H	HL:	HL	HLH	L:	L	LH:	LH	LHL	계
빈도	0	0	1	1	0	28	48	74	22	19	193
비율 (%)	0	0	0.5	0.5	0	14.6	24.9	<u>38.3</u>	<u>11.4</u>	9.8	100

그러나 감탄의 기능 실현 여부에 따라 평서문과 감탄 표현으로 다시 분류하여 <표 3-22>와 같이 종결 억양의 실현을 살펴보면 그 구성이 눈에 띄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감탄 기능 외 평서문의 경우 ‘L%’의 실현율이 62.4%, ‘L%’ 억양 그룹이 73.6%로 실현되어, 감탄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보다 ‘L%’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반면, 감탄 기능의 평서문, 즉 감탄 표현의 경우 ‘LH%’가 38.3%로 가장 많이 실현되었으며, 장음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LH%’ 억양 그룹이 49.7%로 실현되었다.

다음으로, 화·청자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한 2.2.3. 절의 억양 분류 기준에 따라 유형별 종결 억양을 분석하면 <표 3-23>과 같다.

<표 3-23>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 실현 여부에 따른 종결 억양 분석

1. 감탄 기능 외 감탄문의 종결 억양 분석

	직접	간접	중립
[+존대]	13	0	25
[-존대]	10	0	15

2. 감탄 기능의 감탄문의 종결 억양 분석

	직접	간접	중립
[+존대]	93	103	21
[-존대]	150	90	10

3. 감탄 기능 외 평서문의 종결 억양 분석

	직접	간접	중립
[+존대]	10	13	57
[-존대]	47	24	99

4. 감탄 기능의 평서문의 종결 억양 분석

	직접	간접	중립
[+존대]	7	39	21
[-존대]	14	85	27

본 연구에서는 <표 3-23>의 빈도 분포에 대해 통계 검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빈도 통계 검증은 카이 제곱 검정과 피셔 테스트였다. 두 검정 방법은 빈도표 내에 5 이하의 빈도를 지니는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빈도 5 이하의 항목이 있는 표 3-23.1에 대해서는 피셔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카이 제곱 검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표 3-23.1은 'p-value = 0.7898', 표 3-23.4는 'p-value = 0.3347'로 존재 여부와 종결 억양 그룹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 3-23.2는 'p-value = 0.0003532(\*\*)', 표 3-23.3은 'p-value = 0.02847(\*)'로 존재 여부와 종결 억양 그룹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존재 여부와 종결 억양 그룹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난 것을 확인하면, 감탄 기능 외 감탄문의 경우 중립적 억양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간접적 억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감탄 기능의 평서문의 경우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간접적 억양이 가장 많이 실현되었다.

다음은 존재 여부와 종결 억양 그룹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먼저, 감탄 기능의 감탄문의 존재 여부에 따른 종결 억양 분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해당 유형에서는 화자가 반말을 사용할 때 직접적 억양의 사용이 60%,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36%로 직접적 억양의 사용이 더 많았다. 그러나 화자가 존댓말을 사용할 경우 직접적 억양의 사용이 45.1%,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50%가 되어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감탄 기능 외 평서문의 종결 억양 분석이다. 감탄 기능 외 평서문의 경우 직접적, 간접적 억양보다 중립적 억양의 사용이 전체 억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대]에서 중립적 억양 71.2%, [-존대]에서 중립적 억양 58.2%로 중립적 억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4. 감탄문 실현 양상

3장에서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감탄사 실현, 종결 어미 실현 등과 같은 형태·통사적 특성과 음높이 특성, 종결 억양 실현 등과 같은 운율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화·청자 관계를 변수로 두어서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과 감탄 표현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3장의 결과들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그 결과가 지니는 의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4.1. 감탄사의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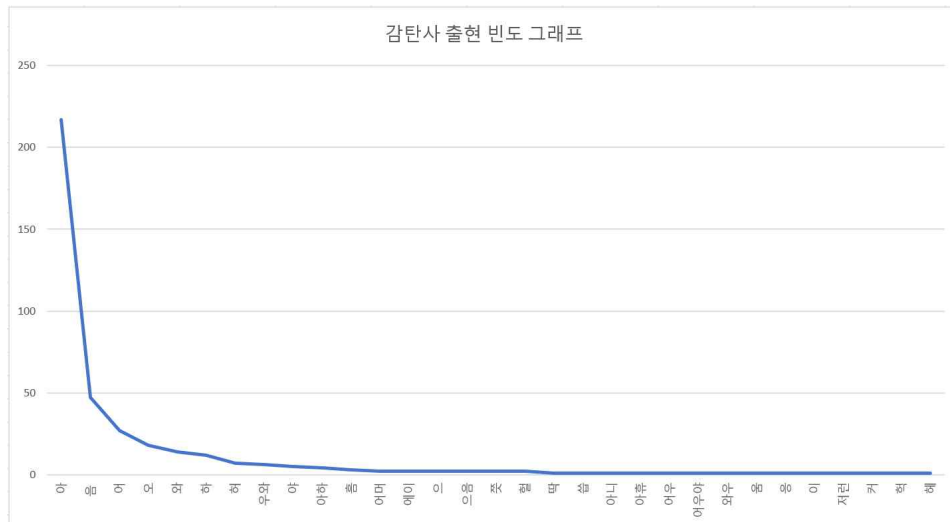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살펴본 386개의 감탄사의 유형은 총 31가지였다. 그러나 31개의 감탄사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감탄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모양으로 나타나 지프의 법칙(Zipf's law)<sup>28)</sup>의 지프 곡선의 모양과 유사한 형태로 분포하였다.

2.2.2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탄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 실현 빈도를 살펴보면 소수의 감탄사들이 고빈도로 나타나며 감탄사의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는 구어 현실에서 사전에 기술된 의미들 이외에도 감탄사의 의미가 다양하게 실현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향후 진행될 감탄사 연구에서 감탄사의 의미를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28) 지프의 법칙(Zipf's law): 지프의 법칙은 자연어 코퍼스에서 단어의 빈도 순위(rank)와 사용 빈도(frequency)를 곱했을 때 그 값이 항상 일정함을 밝힌 법칙이다. 이에 따르면 단어의 빈도 순위와 사용 빈도는 반비례하며, 이에 따라 소수의 고빈도 어휘가 전체 빈도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단어의 균형(vocabulary balance)을 이룬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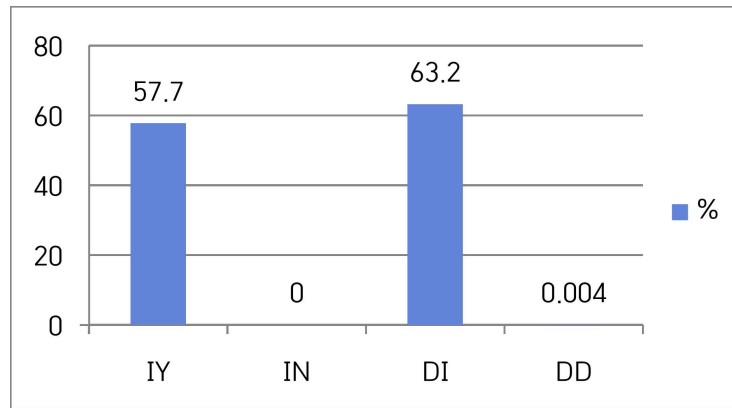
(Zipf 1945)



〈그림 4-1〉 감탄사의 분포

고빈도를 차지하는 소수의 감탄사는 10회 이상 출현한 6개의 감탄사로, 출현 빈도 순서에 따라 ‘아(217) > 음(47) > 어(27) > 오(18) > 와(14) > 하(12)’ 순으로 나타났다. 각 감탄사는 주로 결합하는 종결 어미들이 존재하였다. 먼저 감탄사 ‘아’는 ‘-구나’와 자주 결합하였고, ‘음’과 ‘어’는 종결 어미 ‘-네’와 자주 결합하였다. ‘오’, ‘와’, ‘하’의 경우 종결 어미 ‘-다’와 주로 결합하여 감탄 표현과 함께 실현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감탄사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서 자주 실현되는 단어로, 후행 문장과 의미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평서문보다 감탄문에서 감탄사 실현이 많았고, 감탄 표현과 감탄 기능의 감탄문에서 감탄사 실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른 감탄사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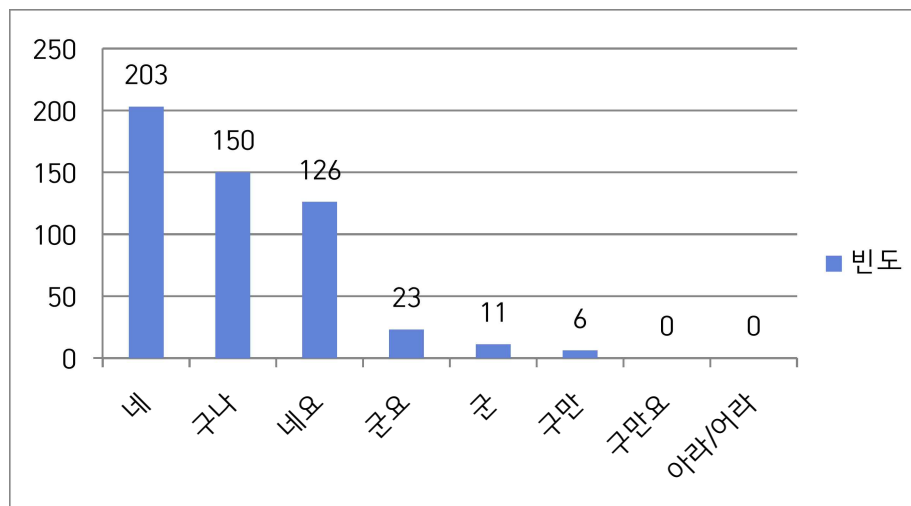
<그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서문(DD)의 감탄사 실현은 1회(0.004%), 감탄 표현(DI)에서의 감탄사 실현은 122회(63.21%)였다. 이와 유사하게 감탄 기능의 감탄문(IN)은 감탄사 실현이 0회(0%), 감탄 기능의 감탄문(IY)에서의 감탄사 실현은 263회(57.68%)였다.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감탄사 실현 여부, 감탄사 결합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 유형에 따른 감탄사 출현율을 확인해보면 평서문(27.77%), 감탄문(50.67%)으로 여전히 감탄문이 유의미하게 감탄사 출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유 발화 자료를 통해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감탄사 실현 양상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탄사의 실현은 화·청자 성별 관계, 존대 여부와 같은 화·청자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와 종합하면 감탄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탄의 기능 실현 여부와 종결 어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2. 종결 어미의 실현 양상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에는 다양한 어미가 포함되었으나, 실제 실현을 살펴보면 세 개의 어미 ‘-네, -구나, -네요’가 전체의 92.3%를 차지하며, 감탄형 종결 어미 실현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4-3> 감탄형 종결 어미 분포

<그림 4-3>을 통해 확인한 어미 출현 빈도에 따라 순서를 나열하면, ‘-네 > -구나 > -네요 > -군요 > -군 > -구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감탄형 종결 어미의 출현 빈도를 연구한 이미지(2014)와 하지희·조용준(2016)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해체와 해요체를 통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해체와 해요체를 통합하여 빈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두 화계의 차이에 따른 빈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체와 해요체를 결합하면 ‘-네(요)’가 ‘-구나’보다 많지만, 해체와 해요체를 분리하면 ‘-네’ > ‘-구나’ > ‘-네요’의 순으로 빈도 순위가 달라진다.

다음은 빈도 순서의 차이이다.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나눔터 (<http://ithub.korean.go.kr>)’에서 제공하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활용하여 감탄형 종결 어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미지(2014)는 구어 자료와 문어 자료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이 중 구어 자료에서 나타난 종결 어미 빈도를 제시하면 ‘-네(요) > -구나 > -더라 > -던테(요) > -군(요) > -더라고(요) > -는데(요) > -구면/구만(요) > -테(요) > -는걸(요) > -더군(요) > -더구나’와 같다. 우선 이미지(2014)는 감탄 표현으로 실현된 어미들을 모두 감탄형 종결 어미로 분류하여 어미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감탄형 종결 어미와 감탄 표현에서 실현된 종결 어미는 다른 층위로 분류해야 한다. 즉, 이미지(2014)에서 제시한 모든 어미들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감탄형 종결 어미 목록과 이미지(2014)의 종결 어미 중 겹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보면 ‘-네(요) > -구나 > -군(요) > -구면/구만(요)’로 정리할 수 있다. 그 결과 해체와 해요체를 통합한 것과 ‘-구면’과 ‘-구만’을 분리하여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본 연구의 구어 자료와 유사한 빈도 순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미지(2014) 자료에서도 ‘-어라’가 1회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미지(2014)에서는 ‘-어라’가 관찰되지 않은 이유를 특수한 사용 맥락으로 설명한다. ‘-어라’는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감각 반응’으로서 감탄을 표현하는 어미로 이미지(2014)에서 사용한 말뭉치 자료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라’가 관찰되지 않은 이유를 ‘-어라’가 주로 혼잣말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미이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는 다양한 자극이 오고 가며, 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어라’가 1회도 관찰되지 않은 것을 보면, ‘즉각적인 반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라’의 경우 혼잣말을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극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 사용되는 어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준구어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하지희·조용준(2016)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빈도 순서와 차이를 보인다. 하지희·조용준(2016)에서 나타나는 빈도 순서는 ‘-네(요) > -는데(요) > -구나 > -구만(요) > -군(요) > -어라 > -는걸(요) > -구먼(요) > -을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하지 않은 종결 어미들을 제외하고 빈도 순서를 다시 제시하면 ‘-네(요) > -구나 > -구만(요) > -군(요) > -어라 > -구먼(요)’의 순이 될 것이다. 하지희·조용준(2016)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구만’과 ‘-구먼’을 분리하여 관찰하였다. 본 연구와의 차이는 ‘-구먼’이 사용 빈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하지희·조용준(2016)의 자료가 10-80대를 아우르는 준구어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연구에서는 ‘-구먼’의 사용은 청장년층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른 차이는 ‘-어라’의 사용이 80회 관찰되었는 것이다. 이는 준구어 자료를 사용한 이미지(2014)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앞의 설명에 따라 이를 해석하면, 드라마, 영화 등의 대본으로 구성된 준구어 자료는 혼잣말을 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어라’의 사용이 관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3. 음높이 실현 양상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음높이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낭독 발화 자료와 자유 발화 자료의 자료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sup>29)</sup> 낭독 발화에서는 감탄의 기능이 없는 평서문을 측정하였고, 자유 발화 자료에서는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화자 개별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화자 별로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를 짝을 지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문장 분류와 상관없이 모든 유형이 낭독 발화보다 자유

29) 서로 같은 특성을 지니는 자료들을 비교하는 것이 정밀한 비교 방법일 것이나, 선행 연구들의 비교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 자료의 자료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

발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장 평균 음높이와 음높이 최고점이 높고, 음높이 최저점이 낮으며, 음높이 최고저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감탄문과 감탄 표현 산출이 평서문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긴 하였지만, 감탄 기능이 없는 평서문과 감탄 기능이 없는 감탄문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즉, 이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만의 음높이 특성이라고 할 수 없고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 사이의 차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1차 분석은 실패한 분석이지만, 음성 연구에 있어서 자료 유형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낭독 발화만으로 실제 구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검토한 결과이기에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논의에서 다시 언급하였다.

1차 분석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2차 분석은 자유 발화 자료 내에서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른 문장 분류가 서로 다른 음높이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비교 분석 검증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음높이 평균, 음높이 최저점, 음높이 최고점, 음높이 최고저차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높이 평균의 경우 감탄 표현이 감탄의 기능이 없는 감탄문보다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종결 어미를 제외하고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감탄 기능의 실현 여부이다. 전자는 감탄의 기능이 실현되어 음높이 평균이 높아진 것이고, 후자는 감탄의 기능이 실현되지 않아 음높이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평서문으로 실현된 문장에 감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음높이가 높아졌다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감탄의 기능이 없는 감탄문이 더 낮게 나온 것은 감탄문도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채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음높이 최저점의 경우 감탄 기능의 감탄문이 감탄 기능 외 평서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감탄문의 음높이 특성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감탄문은 음높이 변동 폭이 크다고 하였는데, 음높이 변동 폭이 커지기 위해서는 최저점이 낮아지고 최고점이 높아져야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감탄 기능 외 평서문보다 감탄 기능의 감탄문의 최저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추측의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음높이 최고점에 관한 논의이다. 음높이 최고점에 관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 연구 결과를 다시 언급하면, 감탄 기능의 평서문은 감탄 기능이 없는 감탄문보다 최고점이 높았고, 감탄 기능의 감탄문 또한 감탄 기능이 없는 감탄문보다 최고점이 높았다. 즉, 감탄의 기능이 실현될 때 음높이의 최고점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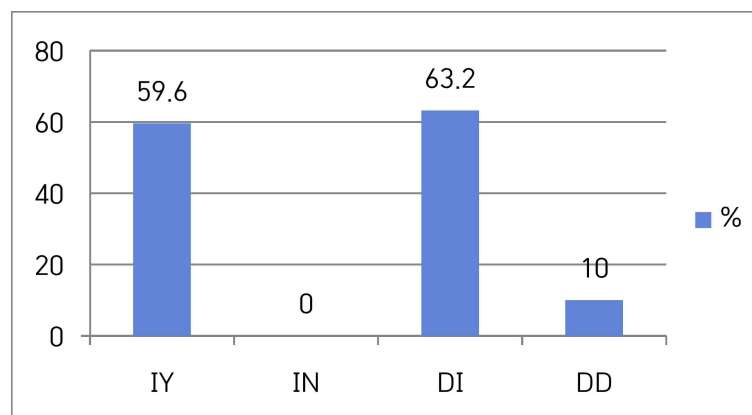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음높이 최고저차의 경우, 감탄 기능과 상관없이 모든 평서문이 감탄 기능 외 감탄문보다 음높이 최고저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감탄문의 경우 음높이 변동 폭이 크다는 선행 연구의 언급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감탄 기능 외 감탄문에서 음높이 최고저차가 평서문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감탄문도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음높이 최고저차는 감탄문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감탄문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음높이 최고저차가 작아졌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평서문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문장 음높이 평균과 음높이 최고점이 높아지고, 음높이 최고저차가 커졌다. 반대로 감탄문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음높이 평균이 낮아지고, 음높이 최고점도 낮아지며, 음높이 최고저차도 작아졌다. 이를 통해 감탄의 기능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음높이 특성이 음높이 평균, 음높이 최고점, 음높이 최고저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이 감탄문으로 실현되면 반드시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의 음높이 특성 결과를 통해서 감탄문도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문장 음높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문장 유형 자체가 아니라, 문장의 기능 실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4.4. 종결 억양의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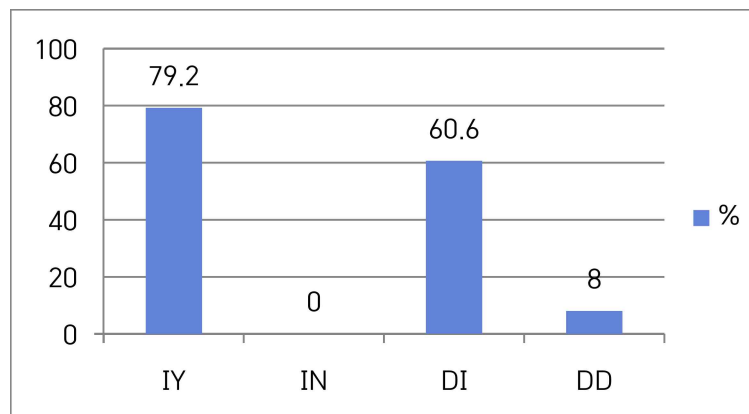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종결 억양의 특성은 장음화와 굴곡 성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결 억양의 세부적인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선행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문장 유형과 감탄의 기능 실현 여부에 따른 장음화와 굴곡 성조의 실현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4-4>는 장음화 실현 양상을, <그림 4-5>는 굴곡 성조 실현 양상을 막대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4-4>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른 장음화 실현 양상

<그림 4-4>와 같이 감탄의 기능을 실현한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서 장음화가 더 많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탄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면 평서문 35.4%, 감탄문 52.4%로 장음화가 실현되었다. 이는 감탄문의 종결 억양에서 장음화가 더 많이 실현된다는 선행 연구의 서술을 대규모 말뭉치를 통해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감탄문에서 장음화 실현이 평서문보다 높긴 했지만,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었다. 즉,

장음화는 감탄문 혹은 감탄 기능의 특성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실현된다고 반드시 감탄문 혹은 감탄의 기능이 실현된 것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감탄의 기능 실현을 판별할 때 여러 가지 운율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4-5> 문장 유형과 감탄 기능에 따른 구곡 성조 실현 양상

<그림 4-5>는 감탄의 기능을 실현한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서 구곡 성조 실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감탄의 기능이 실현된 감탄문의 경우 구곡 성조의 실현이 79.2%, 감탄의 기능이 실현된 평서문의 경우 구곡 성조의 실현이 60.6%로 감탄의 기능이 실현되지 않은 다른 문장 분류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구곡 성조가 실현되었다. 또한, 감탄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 유형에 따라 구곡 성조의 실현을 살펴보면 평서문은 30.9%, 감탄문은 69.9%로 감탄문에서 구곡 성조의 실현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음화와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였던 구곡 성조는 대규모 말뭉치 자료를 통해 검증한 결과, 그 실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곡 성조의 경우 장음화와 달리 그 실현의 비율이 감탄문과 감탄의 기능을 실현한 문장에서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구곡 성조는 감탄문과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 문장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감탄문의 종결 억양을 HL% 또는 HL: %로 한정하여 서술하였다. 일련의 조민하의 연구를 제외하면 감탄문의 종결 억양을 다양하게 살핀 연구가 부족하다. 실제로 본 연구의 관찰에서도 HL% 또는 HL: %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결 억양들이 실현되었으며, 심지어 종결 어미에 따라 주로 결합하는 종결 억양들도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감탄문 종결 어미 목록의 종결 어미들에 대해 살펴보면 ‘-구나, -군, -군요’는 주로 HL: %, ‘-네’는 LH: %, ‘-네요’는 L%와 LH%와 주로 결합하였으며, ‘-다’로 종결되어 감탄의 기능을 실현한 평서문은 LH: %와 주로 결합하였다. 즉, 종결 어미 별로 주로 결합하는 종결 억양들이 존재하며, 모든 감탄문 혹은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 종결 어미가 HL% 또는 HL: %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감탄형 종결 어미와 ‘-다’는 다른 굴곡 성조와의 결합 자유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감탄형 종결 어미들은 주로 결합하는 종결 억양들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굴곡 성조들의 실현도 자유로운 편이었다. 반면 ‘-다’의 경우는 주로 결합하는 종결 억양인 LH: %(38.3%)와 LH%(11.3%), LHL%(9.8%)를 제외하면 다른 굴곡 성조와 결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감탄문의 대표적인 종결 억양이라고 일컬어졌던 HL: % 또는 HL%와의 결합은 각각 1회만 나타나 감탄문의 종결 억양 실현 양상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감탄문의 경우 ‘감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접 화행 표현으로 종결 억양의 실현이 자유롭다. 따라서 감탄을 직접 표현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반면, ‘-다’로 실현된 감탄 표현의 경우 ‘진술’의 주기능 대신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는 간접 화행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를 사용할 때 화자들은 간접적인 억양을 사용하여 완곡어법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 화·청자 관계에 따른 감탄문 실현 양상

### 5.1. 화·청자 관계와 문장 유형의 실현 양상

그동안의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종결 어미 분석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거나, 종결 억양 분석에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었다. 즉, 문장 전체의 실현 양상이 어떠한지, 혹은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 혹은 감탄 표현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3장의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감탄의 기능을 실현하지 않은 문장은 성별 차에 따른 문장 유형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감탄의 기능을 수행했을 때는 성별 차에 따른 문장 유형의 차이가 존재하며, 감탄 기능의 감탄문의 경우 남성의 발화가 많고, 감탄 기능의 평서문의 경우 여성의 발화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화·청자의 성별 관계에 따라서도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실현이 달라졌다.

화자가 남성일 때는 청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감탄문이 가장 많이 실현되었지만, 화자가 여성일 때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화자가 여성이고 청자가 남성일 때는 화자가 남성인 경우와 유사하게, 감탄문의 실현이 감탄 표현의 실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지만, 청자가 여성인 경우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실현율이 유사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감탄문과 감탄 표현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의 차이로 보았다. 구본관 외(2015)를 살펴보면, 해당 문장 유형의 주기능<sup>30)</sup>을 실현한 문장은 직접 화행, 문장 유형의 주기능을 실현하지 않고 다른 기능을 실현한 문장을 간접 화행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진술’을 주기능으로 가지는 평서문이 ‘진술’의 화행을 수행하면 직접 화행이 되고, ‘지시, 감탄, 질문’ 등과 같은 기

---

30) 구본관 외(2015)에서는 한국어의 문장 유형을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으로 보았으며, 이들의 주기능을 각각 ‘진술, 질문, 명령, 청유, 감탄’이라고 보았다.

능으로 실현되면 간접 화행이 되는 것이다. 즉, 감탄문의 경우 감탄문의 주기능인 감탄을 실현하는 직접 화행이 되고, 평서문으로 실현된 감탄 표현의 경우 주기능인 ‘진술’이 아니라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간접 화행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 화행은 완곡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손성이 높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공손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화자 성별에 따른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실현 차이를 다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탄을 표현할 때 상대적으로 공손성이 높은 감탄 표현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성별이 여성으로 동일할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화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화·청자의 성별 관계가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화자와 청자의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존대 여부에 따라서도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실현 양상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 이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감탄’이라는 행위가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경어법이 발달한 한국어 상황에서는 화·청자의 위계가 화자의 발화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은 지위가 낮은 화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화자가 반말을 사용하는 화자에 비해 감탄문과 감탄 표현 산출이 적은 것은 본고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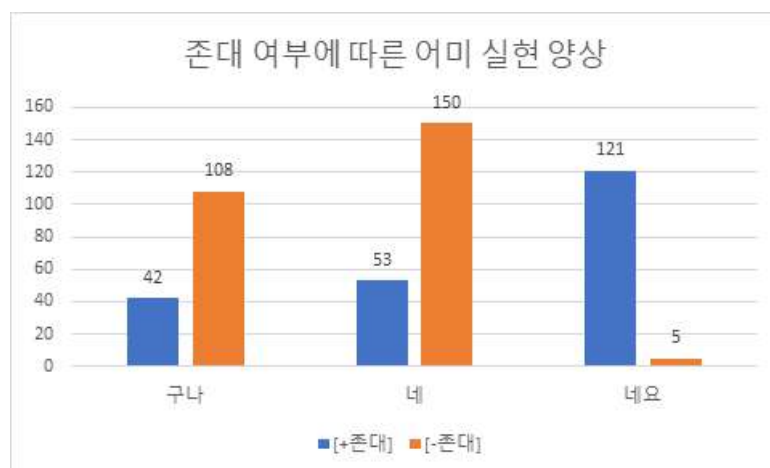
## 5.2. 화·청자 관계와 종결 어미 실현 양상

본 절에서는 화·청자 관계에 따른 종결 어미의 실현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하지희·조용준(2016)에서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감탄형 종결 어미를 선택하는 양상이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네(요)’의 사용이 많고, 남성의 경우 ‘-군’의 사용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화자의 성별에 따라 감탄형 종결 어미 사용 양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화자 성별과 종결 어

미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는 자유 발화 대화 자료를 활용하였고, 하지희·조용준(2016)는 준구어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자유 발화 자료에서 종결 어미와 화자 성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준구어 자료에 사회적 편견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화·청자 성별에 따라서는 종결 어미 실현과 화·청자 성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화·청자 성별 관계에 따라 화자의 감탄형 종결 어미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자가 여성이고 청자가 여성일 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구나, -네, -네요’를 선택하는 비율이 유사하였고, 화자가 여성이고 청자가 여성일 때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5.1. 절에서 논의하였던 화자가 여성일 때 청자의 성별에 따라 감탄문보다 감탄 표현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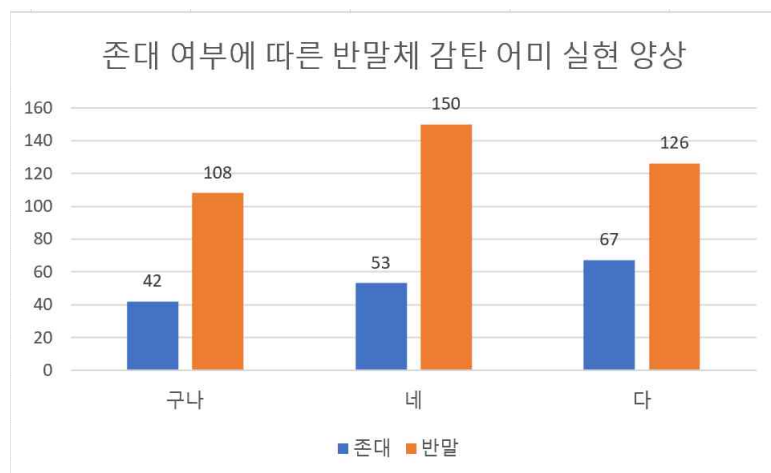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화·청자 관계 중 성별 요인은 감탄문 자체의 감탄형 종결 어미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탄문 또는 감탄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1> 존대 여부에 따른 -네요, -구나, -네의 실현 양상

본 연구에서 고려한 화·청자 관계의 요소 중 존대 여부에 따른 감탄형 종결 어미 선택은 <그림 5-1>에 막대 그래프로 제시된 결과와 같다. 먼저, ‘-네요’의 경우 대부분이 [+존대]로 사용이 되었다. 이는 보조사 ‘-요’ 자체가 청자 대우법의 해요체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체에 해당하는 ‘-구나’와 ‘-네’는 전체가 반말로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반말의 사용이 더 많기는 했지만, 존대에서도 그 사용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림 5-1>이 고빈도 감탄문 종결 어미들의 존대 여부에 따른 실현 양상을 확인한 것이라면, <그림 5-2>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종결 어미 중 고빈도 반말체 어미인 ‘-구나, -네, -다’를 대상으로 존대 여부에 따른 종결 어미 실현 양상을 확인한 것이다.



<그림 5-2> 존대 여부에 따른 반말체 감탄 어미 실현 양상

<그림 5-2>를 보면 반말체 어미 중 감탄형 종결 어미인 ‘-구나, -네’에서의 존댓말 실현 비율보다 감탄 표현인 ‘-다’에서 존댓말 실현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5.1. 절에서 논의하였던, 감탄 표현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존댓말을 하는 화자가 직접 화행인 감탄문보다 간접 화행인 감탄 표현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어의 대화 상황에서 존댓말을 쓰는 화자가 반말체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화·청자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화자가 해체를 사용하더라도 화·청자 간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기존의 논의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청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연구 목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는 청자를 상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청자에 따라 화자가 종결 어미 선택 이외의 추가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당 전략에 대해서는 5.3. 절에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화·청자 관계는 종결 어미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화·청자 관계 요소 중 성별은 감탄문 종결 어미 선택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존대 여부만이 종결 어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3. 화·청자 관계와 종결 억양의 실현 양상

성별에 따른 억양의 공손 전략을 연구한 조민하(2018)에서는 정서를 강한 감정과 부드러운 감정으로 나눈 Gobl & Chasaide(2003)를 참고하여 ‘H, HL’, ‘LHL’는 강한 정서로 분류하고, ‘L’, ‘LH’는 부드러운 정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강한 정서의 표현을 공손성이 낮은 억양이라 정의하였고, 부드러운 정서의 표현을 공손성이 높은 억양이라 정의하였다. 조민하(2018)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억양 유형을 살펴보면, 직접적 종결 억양은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여 공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종결 억양이고, 간접적 종결 억양은 정서를 부드럽게 표출하여 공손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종결 억양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기준을 통해 수행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종결 억양은 화·청자 성별과 존대 여부에 따라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청자 성별에 따

라서 종결 억양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화자 성별이 여성일 때 남성보다 더 직접적인 억양을 많이 사용하였다.

<표 5-1> 화자 성별에 따른 억양 산출 비율

화자성별	문장유형	직접	간접	중립	계(비율)
여	감탄문	<b>113(57.1)</b>	75(37.9)	10(5)	198(100)
	감탄표현	<b>15(12.8)</b>	82(70)	20(17.1)	117(100)
남	감탄문	119(46.1)	118(45.7)	21(8.1)	258(100)
	감탄표현	6(7.9)	42(53.3)	28(36.8)	76(100)

<표 5-1>에서처럼 감탄문과 감탄 표현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접적인 억양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5.1. 절의 논의와 반대되는 것으로, 감탄을 표현할 때 여성은 문장 유형을 통해 공손성을 표현하고 남성은 종결 억양을 통해 공손성을 표현한다 해석할 수 있다.

화자와 청자의 성별을 함께 고려하여 종결 억양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표 5-2> 화·청자 성별 관계에 따른 종결 억양 실현 양상

화·청자성별	문장유형	직접	간접	중립	계(비율)
여->여	감탄문	<b>32(48.5)</b>	<b>32(48.5)</b>	2(3)	66(100)
	감탄표현	9(14.8)	43(79.5)	9(14.8)	61(100)
여->남	감탄문	<b>81(61.4)</b>	43(32.6)	8(6)	132(100)
	감탄표현	6(10.7)	39(69.6)	11(19.6)	56(100)
남->남	감탄문	59(43.5)	<b>52(47.8)</b>	9(8.7)	120(100)
	감탄표현	4(6)	23(57.6)	16(36.4)	43(100)
남->여	감탄문	<b>60(49.2)</b>	66(43.3)	12(7.5)	138(100)
	감탄표현	2(9.4)	19(53.5)	12(38.1)	33(100)

<표 5-2>에서 볼 수 있듯, 화자의 성별과 청자의 성별이 다를 때 직접적인 억양의 사용이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화·청자의 성별이 같을 때에는 앞의 결과와 반대로 간접적인 억양의 사용이 높아졌다.<sup>31)</sup> 이는 화자와 청자의 성별이 다를 때, 화자가 감탄을 표현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화·청자의 성별이 종결 억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자의 성별에 따라 감탄을 표현할 때 공손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화·청자의 성별 관계에 따라서도 종결 억양의 실현 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산출 시,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가정한 채 발화를 산출한다는 설명의 반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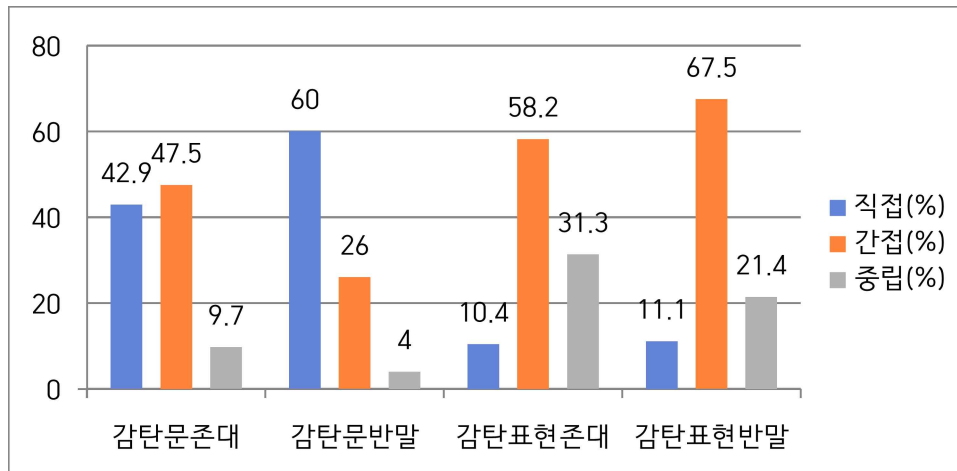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종결 억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존대 여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자의 존대 여부에 따라 종결 억양의 실현을 살피고, 그 종결 억양들을 유형화하였다.

<그림 5-3><sup>32)</sup>과 같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은 각기 직접, 간접, 중립적 종결 억양의 실현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감탄문의 경우 존댓말을 하는 화자는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직접적 억양의 사용보다 많았다. 반면, 반말을 사용하는 화자는 직접적 억양이 간접적 억양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감탄을 표현하는 억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화자의 화용적 전략이라 해석할 수 있다.

---

31) 화자가 여성이고 청자가 여성일 때의 직접적 억양과 간접적 억양의 비율은 동일하였지만, 이는 화자가 여성이고 청자가 남성일 때 직접적 억양의 사용이 간접적 억양의 사용보다 높은 것과 비교된다.

32) <그림 5-3>은 모두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 문장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감탄문은 문자 그대로 감탄의 기능을 수행한 감탄문을 말하며, 감탄 표현은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통해 실현된 문장 중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장을 말한다.



<그림 5-3> 존대 여부에 따른 종결 억양 실현 양상

감탄문의 경우 존대 여부에 따라 직접적 억양과 간접적 억양의 순위가 달라졌던 것에 비해, 감탄 표현은 존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서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다만, 감탄 표현에서는 존대 여부에 따라 간접적 억양과 중립적 억양의 실현 비율이 달라졌다. 존댓말을 하는 화자의 경우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58.2% 중립적 억양의 사용이 31.3%인데 반해 반말을 사용하는 화자의 경우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67.5%, 중립적 억양의 사용이 21.4%로 나타났다.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감탄문의 결과와 대조된다.

그러나 감탄 표현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간접적 억양을 사용하여 더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석하기에는 의심할 점들이 존재한다. 가장 크게 고려할 점은 중립적 억양의 사용이 달라진 것이다. 반말의 경우에 간접적 억양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중립적 억양의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5-3>을 다시 살펴보면 존댓말과 반말의 간접적 억양의 비율 차이가 9.3%였는데 중립적 억양의 차이도 이와 유사하게 9.9%였다. 즉, 중립적 억양의 비율이 달라짐으로 인해 간접적 억양의 비율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감탄’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중립적 억양은 직접적 억양, 간접적 억양에 비해



그 감탄 표현 정도가 약하다. 특히, 직접적 억양과 간접적 억양은 2.2.3절의 표에서 살펴듯 그 억양으로 감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중립적 억양의 L%는 보통 진술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종결 억양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진 못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살핀 중립적 억양으로 실현되었지만,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문장은 종결 억양이 아닌 감탄사 실현, 음높이 특성 등에 의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 감탄 표현에서 종결 억양에 따른 감탄의 실현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직접적 종결 억양 > 간접적 종결 억양 > 중립적 종결 억양 순이 된다. 즉, 감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공손성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생각한다면 중립적 억양이 상대적으로 가장 공손성을 드러내는 표지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감탄 표현의 종결 억양 실현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반말에서는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늘어나고 중립적 억양의 사용이 줄었으며, 반대로 존댓말의 경우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줄고 중립적 억양의 사용이 늘어났으므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화자가 종결 억양을 통해 공손성을 드러내는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4. 화·청자 관계와 감탄사 그리고 음높이 특성

5.4. 절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감탄의 기능을 실현하는 요소 중 화·청자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과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감탄의 특성 중 감탄사는 화·청자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높이 특성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그 조합의 가능성이 너무 커서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는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절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먼저, 감탄사의 경우 4.1.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화·청자 관계보다 종결 어미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감탄사는 감탄 기능 실현 여부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 문장의 의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

구의 분석 결과 감탄의 기능이 실현된 문장들에서 감탄사 실현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특정한 감탄사와 특정한 종결 어미가 주로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진호(2011)에서는 ‘-구나, -네, -다’의 차이를 의외성<sup>33)</sup>과 증거성<sup>34)</sup>으로 설명한다. 그의 설명을 참고하면, ‘-구나, -네’는 의외성을 그 핵심 의미 성분으로 지니지만 ‘-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외성이라는 의미 성분에 의해 ‘-구나, -네’와 ‘-다’가 구분된다. 또한, ‘-구나’와 ‘-네’의 차이는 증거성으로 설명한다. ‘-구나’는 정보 입수경로를 특정 유형으로 제한하지 않아 증거성에 대한 제약을 지니지 않지만, ‘-네’는 정보 입수경로가 제한되어 증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박진호(2011)의 논의에 따라 ‘-구나, -네, -다’를 의외성과 증거성에 따라 구분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박진호(2011)에 따른 ‘-구나, -네, -다’ 분류

	-구나	-네	-다
의외성	O	O	X
증거성	X	O	X

33) 의외성(mirativity): 의외성이란,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unexpectedness), 신정보(new information)임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박진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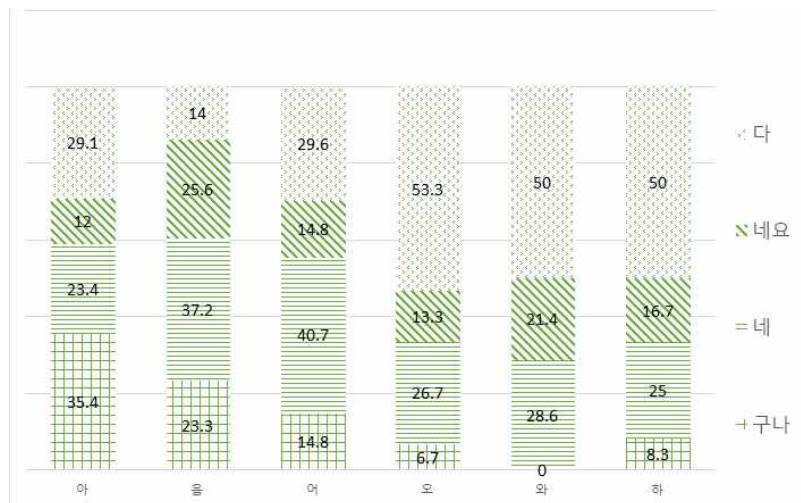
34) 증거성(evidentiality): 증거성이란, 문장에 표현된 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가, 즉 정보의 근원(information source)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구나’와 ‘-네’의 차이를 증거성으로 설명하였는데, ‘-구나’의 경우 증거 입수경로로 ‘오감, 내성, 추리, 전문’ 등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네’의 경우는 ‘오감, 내성, 추리(일정 부분 가능)’는 ‘-구나’와 유사하지만 ‘전문’은 증거 입수경로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증거 입수경로로 ‘전문’을 사용한 예는 아래와 같다.

(10) 갑: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철수도 있더라.

을: 철수도 합격했구나 / \* 철수도 합격했네. (傳聞)

(박진호 2011)

박진호(2011)의 논의를 참고하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어미는 의외성과 증거성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의미 특성을 분류할 수 있다. 2.2.2. 절에서는 감탄사는 문장의 의미 특성에 영향을 받고 감탄사와 문장의 관계는 상호 보완 관계라는 점을 서술하였다. 즉, 특정 감탄사와 종결 어미의 결합 양상은 감탄사와 문장의 상호 보완성에 관한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탄사도 종결 어미의 의외성과 증거성의 의미 특성을 획득한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5-4> 감탄사와 종결 어미 결합 양상

<그림 5-4>에서처럼 감탄사 ‘아’는 ‘-구나’와 가장 많이 결합(35.4%)하였고, 감탄사 ‘음, 어’는 종결 어미 ‘-네’와 가장 많이 결합(37.2%/40.7%)하였다. 특히, 감탄사 ‘오, 와, 하’의 경우는 종결 어미 ‘-다’와 결합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률을 보였다.

<그림 5-4>의 결과 중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감탄사 ‘오, 와, 하’가 50% 이상 ‘-다’로 종결된 감탄 표현과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감탄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감탄 표현의 감탄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인대화DB에서 감탄사와 문장의 결합을 살펴봤을 때, 감탄사 ‘아’는 그 수가 가장 많았던 만큼, ‘동의, 이해, 놀라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감탄을 실현하였다. ‘음, 어’의 경우, ‘동의, 이해, 의심’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고, 본인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으로 실현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오, 와, 하’의 경우 ‘놀라움 또는 의심, 부정’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감탄의 정도가 앞의 세 감탄사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오, 와, 하’와 같은 감탄사들은 감탄의 정도가 강한 감탄사로, 문장이 지니는 의외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오, 와, 하’가 감탄 표현과 많이 결합한 것을 생각해보면, 감탄문보다 상대적으로 의외성이 약한 감탄 표현과 의외성이 강한 ‘오, 와, 하’의 결합을 통해 의외성에 따른 감탄의 측면에서 감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결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감탄사의 개수가 서로 동등하지 않고, 그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므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감탄사의 기능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음높이 특성의 경우 ‘문장 유형, 화자 성별, 청자 성별, 존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4-way ANOVA Test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5-4>와 같다.

<표 5-4> 문장 유형과 화·청자 관계에 따른 음높이 특성

	F-value	Df	p-adj	mark
문장 음높이 평균	2.191	3	0.087601	.
문장 음높이 최저점	0.483	3	0.694116	
문장 음높이 최고점	3.377	3	0.01787	*
문장 음높이 최고저차	2.773	3	0.04046	*

<표 5-4>의 결과 중 문장 유형과 화·청자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받는 음높이

특성은 평균, 최고점, 최저점이었고, 이에 대해 Tukey-HSD를 활용하여 사후 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4-way ANOVA Test의 변수 조합에 따른 사후 검증의 조합 개수는 총 496개<sup>35)</sup>였다. 분석 결과 ‘p-value < 0.05’ 기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조합은 문장 음높이 평균 0개, 문장 음높이 최고점 1개, 문장 음높이 최고저차 1개로 사후 검정을 통해서는 어떤 요소가 문장 음높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즉, 문장 유형과 화·청자 관계가 문장 음높이 특성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지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어떤 요소가 그 효과를 유발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4-way ANOVA Test가 포괄하는 변수들의 조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석하였다. 따라서, 특정 변수들을 통제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낮은 차원의 통계 분석을 통해 더 정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음높이 특성에 관한 논의를 5.4. 절에 포함하였다.

---

35)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4-way ANOVA Test의 변수는 문장 유형(4개), 화자 성별(2개), 청자 성별(2개), 존대 여부(2개)이다. 따라서 32개의 가능한 집단이 나오게 되며, 32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가설 조합의 수는 (11)과 같이 계산된다.

$$(11) \quad {}_{32}C_2 = \frac{(4 \times 2 \times 2 \times 2) \times ((4 \times 2 \times 2 \times 2) - 1)}{2}$$

## 6. 결론

본 연구는 2인의 자유 발화 대화 자료로 구성된 2인대화DB 코퍼스를 활용하여, 한국어 구어 감탄문의 실현 양상을 통계적으로 재검증하고,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감탄의 특성을 드러내는 요소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종결 어미, 종결 억양, 음높이 특성, 감탄사 실현 여부 등을 선정하였고, 해당 요소에 따른 감탄문의 실현 양상을 통계적으로 재검증하였다. 나아가, 화·청자 관계가 감탄을 실현하는 요소들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종결 억양, 문장 유형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인대화DB의 일부로, 화·청자 관계의 영향과 자연스러운 구어 상황에서의 감탄문 실현을 살피기 위해 선정된 114명의 2인 대화 자료였다. 연구 방법에 관해 서술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 자료의 특징을 설명하였고, 그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3장은 분석 기준과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로 전반적인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실현 양상과 그 특성들이 화·청자 관계에 영향을 받는지를 통계 분석과 함께 결과를 제시한 장이다. 4장과 5장은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술한 장이었다. 먼저, 4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감탄문의 특성을 확인하여 해당 요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5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탄문의 특성들을 대상으로 화·청자 관계의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였다. 자세한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장의 논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4장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감탄문의 특성을 검증하는 장이었다. 감탄사는 소수의 감탄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지프 곡선의 모양을 따라 분포하였고, ‘아(217) > 음(47) > 어(27) > 오(18) > 와(14) > 하(12)’ 순으로 나타났다. 문장 유형에 따라 감탄사 실현 비율을 살펴보면 평서문(27.77%), 감탄문(50.67%)으로 감탄문에서 감탄사 실현이 높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종결 어미는 ‘-네, -구나, -네요’가 전체 감탄문 중 92.3%를 차지하며 감탄사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어미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실현 양상을 보였다. 빈도 순서를 정리하면 ‘-네 > -구나 > -네요 > -군요 > -구만’의 순으로 나타났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아라/어라, -구먼(요)’는 1회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빈도 순서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아라/어라’와 ‘-구먼’은 1회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아라/어라’는 혼잣말에 사용되는 어미이며, ‘-구먼’은 중장년층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미이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자료인 2인대화DB와 그 대상이 맞지 않아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음높이 실현 양상의 경우 모든 문장 유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평서문이 감탄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음높이 평균과 음높이 최고점이 높아지고, 음높이 최고저차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감탄문의 경우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 음높이 평균이 낮아지고, 음높이 최고점도 낮아지며, 음높이 최고저차도 작아졌다. 이를 통해 감탄의 기능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음높이 특성은 음높이 평균, 음높이 최고점, 음높이 최고저차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종결 억양의 경우 감탄의 기능을 수행할 때 장음화와 굴곡 성조의 실현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종결 억양의 요소 중 장음화보다 굴곡 성조가 더 유표적인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결 어미에 따라 주로 결합하는 억양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였던 감탄문의 종결 억양 ‘HL%’ 이외의 다양한 종결 억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장의 서술을 통해 검증된 감탄문의 특성을 화·청자 관계와 연관지어 논의하였다. 화·청자 관계에 따라 화자가 감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가 달라질 것이라 가정하였고, 감탄이라는 것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위가 높은 화자에 비해 지위가 낮은 화자가 감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감탄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먼저, 화·청자 관계의 요소 중 성별 요인을 살펴보면, 화자가 여성인 경우 간접 화행인 감탄 표현의 산출이 많아지고, 화자가 남성인 경우 직접 화행인 감탄문의

산출이 많았다. 반면 종결 억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직접 억양을 산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감탄을 산출할 때 선택하는 공손성 전략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우 감탄을 표현하는 공손성 전략으로 종결 어미를 달리하여 문장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고, 남성의 경우 종결 억양을 달리하는 전략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청자의 성별 관계에 따라서는 화자와 청자의 성별이 다를 때 감탄을 표현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는 화자와 청자의 성별이 다를 때 상대의 발화를 수용하는 발화 용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존대 여부에 따라서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화자의 경우 간접적 억양의 사용이 많았고, 반말을 사용하는 화자의 경우 직접적 억양의 사용이 높아졌다. 이는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감탄을 표현하는 억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화자의 화용적 전략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감탄사의 경우 화·청자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문장의 의미와 감탄의 기능 실현 여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높이 특성의 경우 감탄의 특성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후 검증 결과에서는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구어에서의 감탄문 실현 양상을 확인하고, 화·청자 관계가 감탄문의 실현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는 감탄문의 특성을 연구자의 직관이나 준구어 자료를 통해 분석했지만, 본 연구는 대규모 준구어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그동안의 선행 연구가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는 감탄문과 감탄 표현에 대해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청자가 없는 독백 상태에서’라는 제한을 두었던 것에서 나아가, 감탄의 기능에도 화·청자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감탄문과 감탄 표현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동안 배제되었던 화·청자 관계를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범주의 화·청자 관계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



를 지닌다. 특히, 연구 자료가 20대의 친밀도가 높은 화자와 청자의 대화 자료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화·청자 관계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령차, 지위차, 친밀도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5.4. 절에서 서술하였던, 화·청자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감탄사의 의미 기능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음높이 특성에 관해서도 변수가 통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낮은 차원에서부터의 검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감탄문의 종결 어미와 감탄 표현의 종결 어미 목록을 확장하여, 보다 광범위한 문장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더욱 정밀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감탄문과 감탄 표현의 특성이 더 자세히 밝혀지길 고대한다.

## 참고 문헌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II』,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수(1971), 『국어 문법론』, 서울:일조각
- 노대규(1981), “국어의 감탄문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교육』 6, 169-223p
- 노대규(1983), “한국어 감탄문 문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대규(1997), 『한국어의 감탄문』, 국학자료원
- 문보경(2013), “The Characterization of Exclamatives in Korean”,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40, 159-189p
- 박미경(2016), “자유발화의 장음화 실현 양상과 기능 연구 : 토론·발표 발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순(2014), “한국어 상대높임법 실현의 영향 요인 연구”,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98, 289-324p
- 박진호(2011).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1-25p
- 박한상(2007), 『PRAAT: 음성분석프로그램』, 서울:한빛문화
-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 교양
- 신지영(2017), “구어에서 운율 표지와 형태 표지의 분포와 기능”, 한국어학회, 『한국어학』 77, 37-63p
- 안병섭(2008), “국어 운율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승신(2006), “대화형 음성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위한 국어 문말 경계역양의 분류”,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人文論叢』 0(56), 3-42p
- 오재혁(2011), “국어 종결 역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한 지각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석민(2010), “문장종결법 재고”, 한국어학회, 『한국어학』 46, 47-80p

- 이관규(2016),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역락
- 이미지(2014), “한국어 감탄 표현 교육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 25(3), 237-258p
- 이미지(2015), “‘-구먼/-구만’의 의미와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48, 27-47p
- 이종희(2004), “국어 종결 어미의 의미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회, 『국어학』 60, 323-359p
- 전영옥(2012),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 분류 연구”, 한말연구학회, 『한말연구』 31, 229-260p
- 정선주(2007), “인지 작용 양상에 따른 한국어 감탄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와 언어학』 40, 105-123p
- 정인승(1956), 『표준 고등 말본』, 신구문화사
- 조민하(2011), “연결어미의 종결기능과 억양의 역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민하(2015), “구어 어말어미의 종결 구조와 억양의 기능 - 여성 자유발화의 반말 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회, 『한국어학』 69, 313-365p
- 조민하(2018), “성별에 따른 억양의 공손전략 - 20대 대학생 자유발화 분석을 통하여-”, 한국화법학회, 『화법연구』 0(42), 75-96p
- 조민하(2019), “한국어 감탄문 설정의 비판적 고찰”,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 80, 57-83p
- 최현배(1971), 『우리 말본』, 서울: 정음사
- 최호철(2000), “현대 국어 감탄사의 분절 구조 연구 - 감정 감탄사를 중심으로-”, 한국어내용학회, 『한국어내용론』 7, 361-408p
- 하지희·조용준(2016), “맥락 요인에 따른 감탄문 종결 어미의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학회, 『한말연구』 42, 197-228p
- 함병호(2018), “‘감탄사, 문장’ 구성에 대하여”, 동악어문학회, 『동악어문학』 76, 125-156p
- 홍종선(2017), “한국어 구어의 감탄문 표현”,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101, 37-59p

- Beyssade, C. & J-M Marandin(2006), “The speech act assignment problem revisited: Disentangling speaker’s commitment from speaker’s call on addressee. In Bonami, O. & P. C. Hofherr (eds.)”,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6, 37-68p.
- Gobl, C. & Chasaide, A. N.(2003), “The role of voice quality in communicating emotion, mood and attitude”, Speech communication 40, 189-212p
- Jun, Sun-Ah(2000), “K-ToBI(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 version 3.1”, UCLA Working Paper in Phonetics 99.
- Michaelis, Laura A.(2001) “Exclamative Constructions”, In M. Haspelmath, E. König, W. Österreicher and W. Raible,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Walter de Gruyter. 1038-1050p.
- Sohn, Ho-min(1994), 『Korean』, Routledge
- Zipf, George Kingsley(1949), 『Human behavior 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 Addison-Wesley Press.

## 참고 누리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